

2020 DMZ INDUSTRY OVERVIEW

2020 DMZ인더스트리
개요

DMZ인더스트리

DMZ Docs FUND

펀드/제작지원



제작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작비/현물 지원)

DMZ Docs PITCH

프로젝트 피칭



공동 제작 및 투자 유치
+
사전컨설팅/트레이닝랩

DMZ Docs MATCH

비즈매칭



프로젝트 - 산업관계자 간
1:1 맞춤형 미팅 주선

다큐멘터리 '원스톱' 지원 플랫폼,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는 한국 및 아시아의 전도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해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작, 투자유치, 후반작업, 배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큐멘터리 제작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글로벌 진출의 전초기지,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는 한국 다큐멘터리에 특화된 펀딩 및 피칭 프로그램,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체계적인 서비스로 작품의 완성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그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 제작, 투자 유치, 해외 판로 주선 등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해 한국 다큐멘터리 해외 진출의 든든한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종합 산업 허브,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큐멘터리 특화 영화제로써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10년간 축적해 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획된 산업 전문 플랫폼입니다. 국내외 산업 관계자들과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 공동제작 및 글로벌 배급은 물론, 영화, 방송의 다양한 포맷과 장르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기틀을 다져 명실상부한 다큐멘터리의 종합 산업 허브로써 도약하려 합니다.

인터아시아 (Inter-Asia) 다큐멘터리 협업의 중심,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주요 다큐멘터리 영화제, 산업 플랫폼과 긴밀한 연대를 이어가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 간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한층 강화합니다. 아시아 지역 고유의 영화 언어와 다양성으로 무장한 다큐멘터리 정신을 한데 모아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업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DMZ DOCS FUND OVERVIEW

DMZ DOCS 펀드 개요

DMZ DOCS PITCH OVERVIEW

DMZ DOCS 피칭 개요

DMZ DOCS MATCH OVERVIEW

DMZ DOCS 매치 개요

DMZ DOCS FUND

‘DMZ Docs Fund’는 지난 10년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위해 진행해 온 ‘DMZ 제작지원’ 사업에서 한층 확장된 프로젝트이다. 기획개발부터 제작, 후반작업 단계에 걸쳐 20편 내외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제작지원금과 현물 지원 등 다방면으로 우수 프로젝트 완성과 공개를 지원한다.

	기획개발펀드	DMZ프로젝트펀드	후반작업지원펀드	배급지원펀드
선정 편수	한국 및 아시아 10편	한국 2편, 아시아 1편	한국 2편	한국 2편
대상	제작 30% 미만 단계의 프로젝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가 지향하는 주제(DMZ, 통일/ 분단, 분쟁, 평화, 소통, 생명 등)를 가진 제작 30-70% 단계 프로젝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리미어 상영을 위한 퍼스트룩 옵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세부 내용은 개별 안내를 통해 조율)	· 접수 당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작 · 촬영 및 편집 완료된 후반작업 예정작 · 접수 당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리미어 상영을 위한 퍼스트룩 옵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2020년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공식 상영작
혜택	기획개발단계 지원금 5,000,000원	· 제작 지원금 15,000,000원 ~ 30,000,000원 · 당해 DMZ Docs Lab 초청 · 당해 DMZ인더스트리 초청 및 피칭 기회 제공	접수 당해 상영 전 지정 업체를 통한 후반작업 현물 지원 (DI, 사운드 믹싱, DCP패키징)	배급 지원금 10,000,000원

DMZ DOCS PITCH

‘DMZ Docs Pitch’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에 공동제작과 투자, 배급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전문 플랫폼이다. 현재 제작 중인 프로젝트와 촬영을 완료하고 1차 편집이 마무리된 러프컷 단계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제작 단계별 구분된 피칭 행사에서 방송, 배급, 투자 등 국내외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 앞에 소개한다.

제작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피칭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피칭 본 행사에 앞서 국내외 최고 다큐멘터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사전 튜터링 프로그램(DMZ Docs Lab) 참석 기회도 제공한다.

DMZ인더스트리 본 행사 기간에는 피칭 행사와 산업 전문가와의 1:1 미팅 등을 토대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 제작비와 현물 작업 등 실질적인 프로젝트 완성의 추진 동력이자 공동제작, 투자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프로덕션 피칭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소개 형식	공개 피칭 프로젝트당 각 15분 (프로젝트 발표 7분+Q&A 8분)	공개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당 각 10분 (프로젝트 발표+Q&A없음)
대상	30%~70% 제작 단계의 한국 또는 아시아 프로젝트 아시아 지역의 자본이 30% 이상 투입된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	후반작업 및 완성단계에 있는 한국 또는 아시아 프로젝트 미개봉, 미방영 다큐멘터리 (영화제 상영 제외)

DMZ DOCS MATCH

‘DMZ Docs Match’는 프로젝트 관계자와 구매/투자결정권자(디시전메이커) 간 적극적인 교류, 선구매, 수출/투자,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큐멘터리 산업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참가자들을 위해,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와 다큐멘터리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이 풍부한 전문가를 매치메이커로 기용하여 매칭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와의 1대1 미팅을 주선한다.

2020년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행사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해외 산업 관계자들, 아시아 선정 프로젝트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한국 및 아시아 프로젝트가 세계 다큐멘터리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DMZ Docs Match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의 추가 자료 열람이 필요하거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산업 관계자들을 위해 트레일러 등 선정 프로젝트의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The MBL Company와의 협력을 통해 OTT 플랫폼 무비블록에 DMZ인더스트리 전용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행사장 내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2020 DMZ INDUSTRY AWARDS

2020 DMZ인더스트리
어워드

DMZ인더스트리 상금 지원

시상명	참가부문	시상 대상	선정 편수	지원금
DMZ 최우수 프로젝트	프로덕션 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에 소개된 제작 단계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월드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한국 1편 아시아 1편	각 3천만 원
DMZ 최우수 프로젝트	러프컷 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Docs Pitch: 러프컷 프레젠테이션에 소개된 러프컷 단계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아시아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한국 또는 아시아 1편	2천 5백만 원
DMZ 최우수 프로젝트	신진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에 소개된 제작 단계 프로젝트 중 장편 다규 제작 2편 이하 연출 경험, 신진 작가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아시아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한국 1편 아시아 1편	각 2천만 원
DMZ 우수 프로젝트	프로덕션 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에 소개된 제작 단계 프로젝트 중 다규멘터리의 정신, 패기를 잘 살린 우수 피칭 프로젝트 (기성 또는 신인 무관)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한국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한국 2편 아시아 2편	각 1천5백만 원
DMZ 우수 프로젝트	K-Doc Cura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Docs Pitch에 소개된 제작 단계의 한국 프로젝트 중 "한국" 다규멘터리의 독심, 한국 다규색을 잘 살린 우수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한국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한국 1편	1천5백만 원
DMZ 우수 프로젝트	러프컷 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Docs Pitch: 러프컷 프레젠테이션에 소개된 러프컷 단계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한국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한국 1편 아시아 1편	각 1천만 원

* 시상 대상: DMZ인더스트리(프로덕션 피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소개되는 공식 프로젝트 중 DMZ인더스트리 심사위원단에서 직접 선정

* 심사위원 회의에 따라 적합한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DMZ인더스트리 현물 지원

시상명	지원 내용	선정 편수	후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반작업 현물 지원 (DI, 사운드, DCP) 	한국 2편	서울산업진흥원
무비블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상영 지원 무비블록을 통한 비독점 형태의 글로벌 배급 무비블록 서비스 개시 후 무비블록 메인 화면 상단 2주간 노출 등의 홍보 지원 	한국 1편 아시아 1편	무비블록
필앤플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 이후 극장 개봉 시 홍보마케팅 대행 지원 	한국 1편	필앤플랜
독엣지콜카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독엣지콜카타 공식 선정 및 참가 지원 숙박 4박 (독엣지콜카타 제공)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 1개 (DMZ인더스트리 제공) 	한국 1편	인도 독엣지콜카타
독엣지콜카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독엣지콜카타 공식 선정 및 참가 지원 숙박 4박 (독엣지콜카타 제공)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 1개 (독엣지콜카타 제공) 	아시아 1편	인도 독엣지콜카타
AIDC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 AIDC (Australian International Documentary Conference) "온라인" 참가 지원 오퍼버 배지 1개 제공 AIDC 피칭 프로그램 the FACTory 출품료 면제 	한국 1편	호주 국제다큐멘터리 컨퍼런스

* 시상 대상: DMZ인더스트리(프로덕션 피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소개되는 공식 프로젝트 중 후원사에서 직접 선정

* 후원사가 지향하는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시상명	지원내용	선정 편수	협력기관
EBS 다큐프라임 커미셔닝 어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당 최대 1천만원 제작비 지원 (부가세 별도) · 제작비 지급 방식: 계약 체결 후 50%, 촬영 완료 후 50% · 작품 완성 후 50분물 방송용 제작 납품 조건 	한국 또는 아시아 2편	EBS 국제다큐영화제
KBS독립영화지원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당 순 제작비 25% 내 최대 5천만 원 지원 (부가세 별도) · 제작비 지급 방식: 계약 체결 후 50%, 촬영 완료 후 50% · 작품 선정 후 KBS자회사인 KBS미디어를 통해 별도 계약 체결 · 극장 개봉을 위한 홍보마케팅(P&A)비용 지급 - 배급사 선정이 안 된 경우 KBS미디어가 배급사 역할을 함 	한국 1편 이상	한국방송공사 (KBS)
뉴스타파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당 최대 1천만원 지원 (부가세 별도) · 제작비 지급 방식: 계약 체결 후 50%, 완성본 제출 후 50% · 작품 선정 후 뉴스타파재단과 별도 계약 체결 	한국 1편 이상	뉴스타파재단

* 시상 대상: DMZ인더스트리(프로덕션 피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소개되는 공식 프로젝트 중 DMZ인더스트리 심사위원단에서 직접 선정

* 협력사가 지향하는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020 DMZ INDUSTRY PROJECTS

기획개발펀드

*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한국			
메이 제주 데이	강희진		한국
안경,안경들	고두현	양주연	한국
여공의 밤	김건희	송원재	한국
정류장 풍경	유하은	김보람	한국
착지연습	마민지	오희정	한국
크로이츠베르그	반박지은	김다형	한국, 독일
아시아			
6번국도	야마다 토루	야마다 토루	일본
눈이 녹는 계절	로 이산	우 판 조 지란	대만
저항백주: 시대에 맞서다	팍헝 필립 호	리타 후이	홍콩
GNH: 국민행복지수	아룬 바타라이	아룬 바타라이	부탄

DMZ 프로젝트펀드

*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한국			
붉은 어깨 도요를 기억하니?	황윤	김성환	한국
하나코리아	프레데릭 실뢰르	사라 스투만 오희정	한국, 덴마크
아시아			
마지막 겨울	수니르 판디 라잔 카셋	수니르 판디 라잔 카셋	네팔, 루마니아

후반작업지원펀드

*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고양이들의 아파트	정재은	정희태	한국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김철민	조은성	한국

프로덕션 피치

*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한국			
두 사람을 위한 식탁	김보람	박지혜	한국
세이모어의 청춘일기	양진용	김현수	한국
수카바티	나바루 선호빈	박진석 이효림	한국
쓰레기덕후소셜클럽	유혜민	신혜인 김문경	한국
애국소녀	남아름		한국
홀그라운드	권아람		한국
흙수저의 세계일주	유최늘샘		한국
아시아			
노(能), 나와 나의 어머니	척 칭	척칭 켄 후이	홍콩
닝두	레이 레이	이자벨 글라상	홍콩, 네덜란드
델리로 가는 여정	비니타 네기	비니타 네기	인도
두 번째 고향	프랭키 신	레베카 지앙 스테파노 첸티니 피터 얄	홍콩, 대만
창공	쇼네크 센	아만 만	인도
침묵의 집	파르나즈 주랍시안 모하마드레자 주랍시안	엘라헤 노바크트	이란
카메이	샤로크 비카런 일리아스 유리쉬	일리아스 유리쉬	아프가니스탄
혁명의 연대기	카테리나 수보로바	빅토리아 칼라쉬니코바	카자흐스탄
VoB: 히잡을 쓴 메탈밴드	요셉 양기 노엔	율리아 에비나 바라	인도네시아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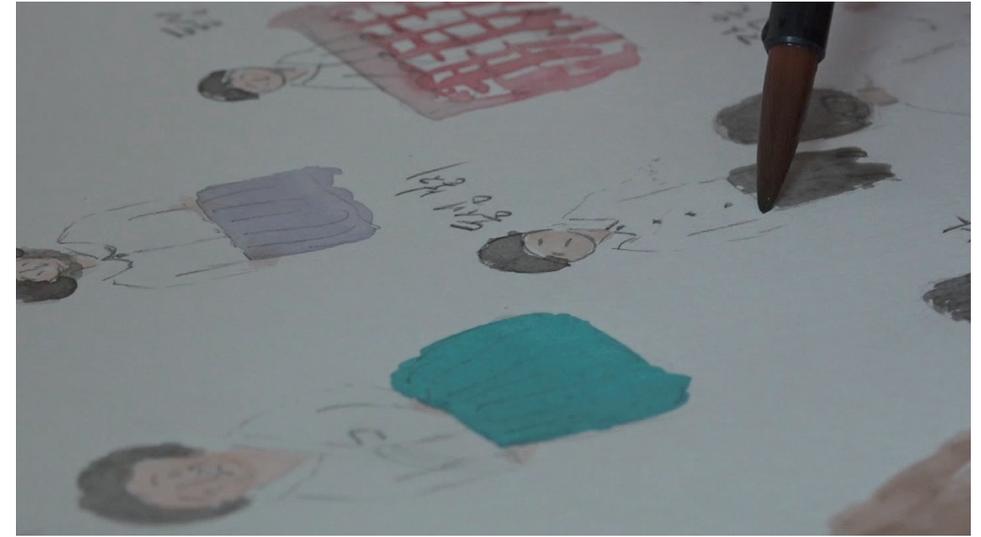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한국			
모어	이일하		한국
화	원호연	김선영	한국
아시아			
네 개의 여정	루이스 핫핫핫	피터 반 위스티	네덜란드
바다에서 마지막 날들	베니스 아티엔사	우 판	필리핀
불이 들어오면	아누파마 스리니바산 아니르반 두타	아니르반 두타	인도

DMIZ DOCS FUND

기획개발

메이 제주 데이(가제) May Jeju Day (working title)

한국 | 한국어 | 90min | DCP
 실험적, 역사, 사적&관점, 전쟁&분쟁,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제주 4-3을 목격했던 4명의 어린이.
 70년이 흐른 후 그날의 기억을 그림으로 증언하는 장편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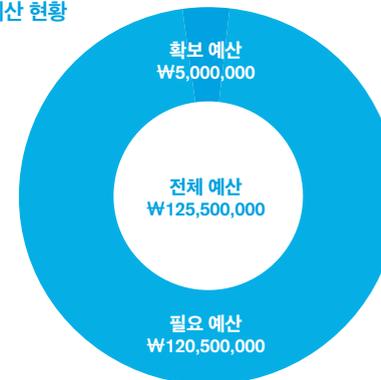
목표

프로듀서 영입,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20.10 - 2021.03
제작	2021.04 - 2021.10
후반작업	2021.11 - 2022.02
제작완료	2022.02

예산 현황



확보 예산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5,000,000
------------------------	------------

펀드

시놉시스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 군정의 강압이 계기가 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으로 인해, 당시 제주 인구의 10명 중 1명이 희생되었다.
국가폭력이 자행한 대량학살의 광풍에서 살아남은 어린이들이,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날의 기억을 그림으로 증언한다.

기획의도

관광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제주에는 약 70여 년 전 “제주 4·3”이라 불리는 국가폭력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로 인해, 가족과 이웃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강압하는 군경과 저항하는 무장대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민간인들. 특히 이념과 상관없이 엄마 손을 찾던 아이들이, 눈앞에서 가족을 상실한 후 70년의 세월이 흘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제주 4·3의 정명(正名) 문제는, 현재도 대립하는 이념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상실을 겪은 이들의 삶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다만 70여 년간 발화되지 못한 말들을 귀담아듣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그림으로 옮겨 담으며, 가만히 주름진 어린 손을 카메라로 응시한 채 시간을 거슬러본다.

제작사

스튜디오티컵 | studioteacup@gmail.com

차를 마시고 비워내듯 작품마다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 스튜디오



감독

강희진
judekang22@gmail.com

꽃피는 편지 | 연출 | 2016

할망바다 | 연출 | 2012

2012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트래블링 슛츠 인 코리아 - 최우수작품상

2012 부산여성영화제 - 2등 은아리상

안경, 안경들 The Eyeglasses

한국 | 한국어 | 60min | DCP
역사, 사회&인류



사라진 죽음, 돌아온 안경. 기억하는 사람들, 경험하는 시선들.

목표

초기 기획 개발 비용 확보 및 멘토링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20.02 - 2020.09
제작	2020.10 - 2022.02
후반작업	2022.03 - 2022.08
제작완료	2022.08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12,000,000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5,000,000

시놉시스

카메라 앞에 앉은 안경들은 자신의 시력에 대한 일상적인 기억을 꺼내기 시작한다. 언제부터 눈이 나빠졌는지, 처음 안경을 쓴 날의 기분은 어땠는지. 화제는 자연스럽게 오래전 자신들 곁에서 사라진 '검은 뿔테 안경'으로 옮겨간다. 30년 전 검은 뿔테 안경이 바다에서 떠오른 날, 그들은 모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나이가 든 그들은 이제 안경이 없으면 세상을 보지 못한다. 안경은 때때로 불편하고, 벗어던지고 싶은 물건이다. 기억은 서서히 사라져 가는데, 검은 뿔테 안경은 수십 년 만에 땅속에서 솟아났다. 솟아난 안경은 그들에게 질문으로 돌아온다. 지난했던 시간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나고. 안경들은 각자의 대답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기획의도

2014년 여름의 일이다. 나는 25년 전에 죽은 청년의 이장식 영상 기록을 담당하게 되었다. 영정 사진 속 청년은 곱슬 거리는 파마머리에 얼굴의 반을 덮을 듯한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1989년, 청년은 8월의 학교 교정에서 사라져 먼 남해의 외딴섬 거문도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청년의 친구들은 다음 날 거문도에 내려갔지만, 두 달간의 조사에도 청년이 왜 죽었는지 밝혀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서 떠오른 안경을 무덤에 함께 묻었다. 청년의 친구들은 여전히 왜 그 청년이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는 의무처럼 드리워져 있다. 나이가 들어 주름진 그들의 눈과 그 위를 포개듯이 없어진 안경들이 어느새인가 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죽은 청년만큼이나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졌다. 검은 뿔테 안경이 사라진 그 날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제작사

영화사 금요일

영화사 금요일은 역사에서 지워진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위해 2017년 만들어졌다. 회사의 이름은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등장인물 '프라이데이'에서 따왔다. 회사는 <옥상 위에 버마>(2016)를 연출한 고두현을 주축으로 운영 중이다.



감독

고두현
keumyoil.film@gmail.com

요요현상 | 연출 | 2019
목소리 | 연출 | 2017
옥상 위에 버마 | 연출 | 2016
2016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경쟁 상영



프로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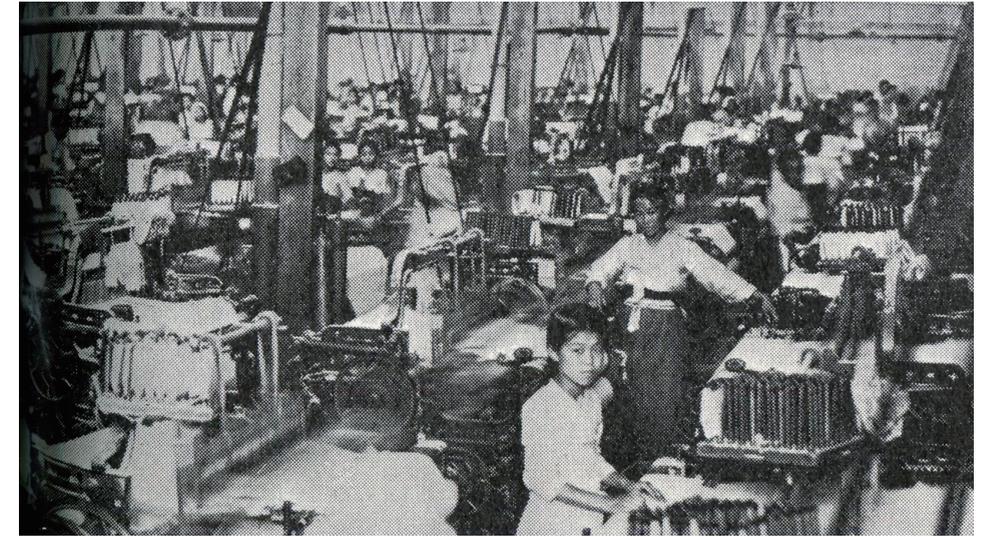
양주연
yy.juyeon@gmail.com

요요현상 | 제작 | 2019
옥상자국 | 연출 | 2015
내일의 노래 | 연출 | 2014
양동의 그림자 | 연출 | 2013

여공의 밤

The Night of the Factory Girls

한국 | 한국어 | 70min | DCP, MOV
젠더, 역사, 사회&인류, 공간



100년 전, 영등포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여성들의 사진을 본다. 영등포에서 기록되지 않은 이 여성들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그 많은 여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목표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9.08 - 2019.12
제작	2020.01 - 2020.12
후반작업	2021.01 - 2021.06
제작완료	2021.07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35,800,000
DMZ Docs Fund -기획개발펀드	₩5,000,000
영화진흥위원회-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45,000,000

시놉시스

이 이야기는 100년 전, 식민지 시기의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다. 사진 속의 여공을 찾아 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영등포로 가서 그녀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현재 영등포에는 과거 대형 공장은 사라지고, 그 위에 아파트와 백화점, 경마장, 여인숙, 철공소, 음식점, 행간을 잃어 낼 수 없거나 폐허가 된 텅 빈 공간만이 남아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과 풍경을 통해서 여공이 남겼을지 모르는 흔적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장은 오랜 시간 빛에 노출되어 부식되었고,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자, 그곳은 오갈 데 없는 비둘기의 집이 되었다. 이후 감독은 여공의 가족을 만난다. 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여공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기억을 간직한 사람의 표정과 몸짓에서 여공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끝에서 살아남은 여공을 만난다. 온전히 감당해온 그 모든 시간이 옥순과 복순의 얼굴과 몸에 새겨져 있다.

기획의도

100년 전, 영등포의 한 피혁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공의 오래된 사진이 발견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 사진에 담긴 그녀의 표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다큐멘터리 <여공의 밤>은 그동안 제대로 이야기된 적 없었던 일제 강점기 시기의 여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1920년대 지어진 오래된 공장이 남아 있는 서울의 영등포에는 그 시절 일하던 여공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처럼 떠돌지만 그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공장, 백화점, 먹자골목, 여인숙, 경마장, 성매매 촌에 이르는 이질적인 공간만이 흔재해 있을 뿐이다. <여공의 밤>은 영등포라는 공간을 주요 배경으로 하며 공간과 여공의 상실된 시간을 함께 사유하고 발견해 가는 프로젝트다. 흔적을 지워낸 공간의 틈새에서, 희미해진 그녀의 기억 사이에서 소실된 여공의 이야기를 찾아 그녀의 삶을 영화로 복원해 보고자 한다.



감독

김건희
gunhee4147@gmail.com

다행히 아무도 나를 모른다 | 연출 | 2018
당산 | 연출 | 2017
2018 인디포럼
2018 인디다큐페스티벌
2017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7 서울독립영화제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 연출 | 2016
환시 | 연출 | 2015
마지막 풍경 | 제작 | 2013



프로듀서

송원재
songofthecinema@gmail.com

당산 | 연출 | 2017
2018 인디포럼
2018 인디다큐페스티벌
2017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7 서울독립영화제
당신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 스크립터 | 2016
2018 제천국제음악영화제
At The Copa | 연출 | 2015
얼라이브 | 제작 | 2015

정류장 풍경 My Non-human Animal Family

한국 | 한국어 | 60min | MP4
환경&자연, 사적&관점, 동물권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13살 은별이가 버려진 푸들을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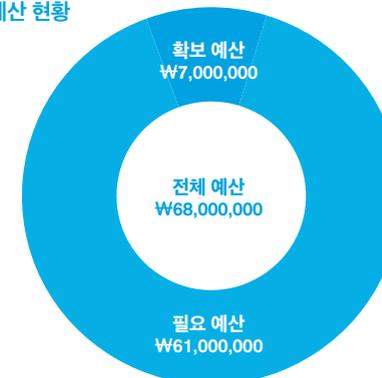
목표

투자 유치, 프로젝트 홍보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20.03 - 2020.05
제작	2020.05 - 2020.12
후반작업	2021.01 - 2021.03
제작완료	2021.03

예산 현황



확보 예산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5,000,000
인천영상위원회, 한국영상위원회	₩2,000,000

시놉시스

새 식구가 왔다. 새 식구는 아직 이름도 짓지 못했고 운명도 정해지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한적한 요양원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푸들을 발견했고 차를 멈추자 그 푸들은 엄마 아빠한테로 왔다고 한다. 부모님은 무명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생체 칩이 없어서 어디서 온 개인지 알 수 없었다. 동생들은 무명 강아지를 키우자고 하고 부모님은 마당에 있는 세 마리의 개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실내에서 잘 키울 수 있는 반려 인을 구하자고 하신다. 무명 강아지를 둘러싼 논의들을 따라가면서 그동안 우리 집을 거쳐 갔던 수많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을 꺼내본다.

기획의도

동물들은 참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던 동물이 병들어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거나,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입양했던 동물이 늙고 병들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유기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물 유기, 개식용 등 반려동물 문화가 아시아에서도 가장 열악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우리 가족이 강화에 오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경험이 되었다. 우리 집은 유기견들과 길고양이들의 정류장이 되었고 우리는 그 동물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만드는 이 영화가 동물들의 더 나은 삶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감독

유하은
pinkfides@naver.com

오늘과 내일 | 연출 | 2019



프로듀서

김보람
fruit52@hanmail.net

개의 역사 | 연출 | 2017
독립의 조건 | 연출 | 2014
결혼전, 투 | 연출 | 2013

착지연습 Grounding

한국 | 한국어 | 80min | DCP
예술&문화, 젠더



성폭력피해 생존자가 '지금'을 살아내기 위해 작은 몸짓을 시작한다.

목표

프로듀서 영입,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20.02 - 2020.09
제작	2020.10 - 2021.12
후반작업	2022.01 - 2022.09
제작완료	2022.11

예산 현황



확보 예산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5,000,000
서울문화재단 예술치유허브	₩26,600,000
한국여성재단	₩6,500,000

시놉시스

#00계 내 성폭력과 미투의 물결이 지나간 이후,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을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았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시도 때도 없이 기억은 과거로 돌아가고, 폭력을 간직한 몸은 작은 자극에도 굳어버린다.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 씻고 집 밖을 나서는 과정 하나하나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과거에 머물러있는 몸의 시간을 움직이기 위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무용치료가, 안무가,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움직임 워크숍을 기획한다. 잊고 있던 손가락 끝의 감각을 느끼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 안전한 공간에서 숨을 들이켜고 내뿜는 과정을 다시 경험한다. 지금의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 함께 몸을 움직이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연습을 시작한다.

기획의도

다큐멘터리라는 매체는 출연자의 삶에 어떤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큐멘터리 <착지연습>은 다큐멘터리의 수행적 실천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획되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감독은 출연자들과 함께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정체성에서 지지자로 정체성을 확장해 나간다. 트라우마는 신체의 시간을 과거로 회귀하게 만든다. 또한, 원하지 않는 기억이 자꾸 떠오르게 하며, 현실감이 없어지게 만든다. 착지연습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을 느끼며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안정화 기법 중의 하나이다. 영화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삶의 감각을 현재로 돌리는 과정을 따라가며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움직임들을 담아낸다.

제작사

시소픽처스 | contact@seesawpics.com

시소픽처스는 우수한 한국 다큐멘터리의 해외 배급을 전담하며 아시아 다큐멘터리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온 오회정 프로듀서가 설립한 회사이다. 유럽 시장에서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국제 공동제작 및 해외 배급 분야에서 인정받는 제작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쌩마픽처스 | blackdrat@gmail.com

쌩마픽처스는 도시, 젠더, 장애 이슈에 주목하며 매체 간 협업을 실험하고 이를 통해 소셜 임팩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고민하는 독립영화 제작사이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예술계 내의 현안을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활동 및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감독

마민지
blackdrat@gmail.com

버블 패밀리 | 연출 | 2017
2017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대상
성북동 일기 | 연출 | 2014
아폴로 17호 | 연출 | 2012
언어생활 | 연출 | 2009



프로듀서

오회정
hj.oh.film@gmail.com

다공성 계곡2: 트릭스터 플롯 | 제작 | 2019
2019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익스텐디드
사막의 진주 | 제작 | 2019
2019 암스테르담국제다큐영화제 장편부문 - 경쟁
그날, 바다 | 제작 | 2018

피의 연대기 | 제작 | 2017
201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다큐멘터리 욕망
문화상
2017 서울독립영화제 - 새로운 시선상
더 플랜 | 제작 | 2017

크로이츠베르크 Kreuzberg

한국, 독일 | 한국어, 독일어 | 75min | DCP
젠더, 역사, 사회&인류



30년을 함께 한 1세대 재독 간호사 김인선과 이수현

목표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9.04 - 2019.10
제작	2019.10 - 2020.12
후반작업	2020.12 - 2021.04
제작완료	2021.04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35,976,776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5,000,000
베를린예술대학교(현물지원)	₩5,400,000
Brandenburg - VIA Berlin	₩6,006,284

시놉시스

김인선과 이수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처음 만나 장벽이 무너진 후 같이 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둘만의 내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쿼어축제에서 같이 손을 잡고 걷고, 해수욕장에서 일광욕하고, 새해에는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고, 특별한 날 손을 마주 잡고 커플 댄스를 춘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이해해 주는 건 서로밖에 없었다. 둘은 본인들과 같은 경계 주변의 인물들과 연대하며 삶을 개척해나간다.

기획의도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은 3분의 1 가까이가 독일 시민권자가 아닐 정도로 높은 비율의 이민자가 사는 지역이다. 6,70년대에 독일로 이주한 1세대는 삶의 마감을 독일에서 준비하고 있다. 70년대 한국에서 독일로 이주한 김인선과 이수현은 독일에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 산 세월의 2배가 넘지만,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당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동양인 이민자로, 노동자로, 노년의 레즈비언으로 어떻게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고 어떤 고민을 하며 공동체와 연대하는 것일까.



감독

반박지은
jieunworks@gmail.com

On The Boundary | 연출 | 2019
대교집 | 연출 | 2018



프로듀서

김다형
dahyoungkim17@gmail.com

퍼니게임 | 제작 | 2018
2018 부산국제영화제 VR Cinema in BIFF
우리 헤어졌어요 | 각본 | 2015
철수씨 출근해요? | 연출 | 2015
어떻게 인생을 해결할 것인가? | 연출 | 2011

6번 국도 ROUTE 6

일본 | 일본어 | 120min | DCP, MOV
예술&문화, 역사, 생활, 사적&관점, 사회&인류, 여행기



올림픽 개최지 도쿄와 원전사고 발생지 후쿠시마를 잇는 6번 국도의 명(明)과 암(暗)을 찾아 나서는 로드 무비

목표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 배급사 계약,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20.07 - 2020.08
제작	2020.09 - 2020.12
후반작업	2021.01 - 2021.04
제작완료	2022.04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확보	₩11,184,000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5,000,000

시놉시스

2011년 원전사고 발생 이후로, 후쿠시마에서 영화 제작을 하고 있다. 도쿄에서 후쿠시마를 갈 때는 6번 국도를 타는데, 고층 건물들을 지나 지바 현에 다다를 즈음 맥도날드와 편의점들이 보인다. 국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바라키 현에는 일본의 근대화를 가속시킨 히타치 사 공장들과 버려진 석탄 굴착기들, 공업 단지가 늘어서 있다. 이를 지나면 도시에 식물을 공급하는 농경지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곧 쓰나미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후쿠시마 해안가에 도착한다. “귀환곤란구역” 표지판을 지나서부터는 공기가 다르다. 불이 꺼진 편의점과 비디오 게임방이 보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을 지나면, 검은 봉지들이 산적해 있는 탁 트인 곳이 나온다. 태평양을 향해 바라보면 버려진 원자력 발전소가 숲 꼭대기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이미 지진에 대해 잊어버린 듯 하지만, 도쿄에서 6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8시간을 달리다 보면 급격한 근대화의 결과와도 같은 원전 사고가 마치 나의 문제처럼 느껴진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도쿄 올림픽은 2021년으로 연기되었고, 현재 도쿄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풍요로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6번 국도의 여정을 이어가며 나는 다시금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지진 이후 9년 동안 사람들과 만남, 그리고 이별, 그날의 기억, 변화하는 환경. 이 영화는 6번 국도를 통해 도쿄 올림픽을 향한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비추어 본다.

기획의도

COVID-19로 인해 연기된 도쿄 올림픽의 정신은 2011년 지진 사태를 극복한 일본의 단결력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생필품을 잔뜩 구비해 놓은 시민들의 모습과, 직장과 집을 잃은 취약 계층, 인간의 존엄성은 등진 채 경제 회복만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의 모습은 9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도시인들과 부유 계층은 살아남았지만, 농촌 지역민들과 빈곤층은 큰 타격을 입었다. 도쿄와 후쿠시마를 잇는 6번 국도는 근대 일본의 참상으로 가득하다. 원전 폭발 사고, 탄광, 농업, 임업, 어업, 이주 노동자, 도시 개발에 착취 당한 난민들... 본 영화는 역사 속 잊혀진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부흥의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감독&프로듀서

야마다 토루
info@yamadatoru.com

Ambiguous Loss | 연출 | 2018

2019 아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8 도쿄 독스

Fukushima Fishermen | 연출 | 2016

눈이 녹는 계절 After the Snowmelt

대만 | 중국어, 영어, 네덜어 | 70min | DCP
환경&자연, 실험적, 사적&관점, 청소년&어린이



친구가 죽고 난 뒤, 나는 그녀가 살았을 법한 삶을 살고 있다. 몇 년 후, 그 사고 이후로 심대에 머물러 있는 소녀를 찾아 나선다.

목표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8.05 - 2020.05
제작	2020.05 - 2021.05
후반작업	2021.01 - 2021.09
제작완료	2021.10

예산 현황



확보 예산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5,000,000
National Culture and Art Foundation of Taiwan - Documentary Production Fund	₩61,090,800
New Taipei City Award for Documentary	₩12,218,400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aiwan - Research Grant	₩4,886,400
Svemirko Film Production - Producer's Fee	₩5,965,200

시놉시스

십대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 때, 보수적인 분위기의 여고에 함께 다니는 첨첨를 만났다. 나는 그녀 덕분에 교실 밖의 세상에 눈 뜨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야생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반항아 성유와 사랑에 빠졌다. 스무 살 생일 날, 그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정을 품고 내팔로 트레킹을 떠났고, 그 곳에서 예기치 못한 폭설을 마주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47일 동안 동굴에 갇혀 있었고, 첨첨는 구조대에 발견되기 3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알려졌다.

사고 후, 나는 첨첨가 하곤 했던, 혹은 그녀가 무사히 구출되었다면 했을 법한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 성유와 몇 차례 하이킹을 하다 한번은 그녀가 동굴 속에서 썼던 일기를 발견했다. "동굴에 들어서고 나서야 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그녀가 삶의 의미를 이미 깨달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나는 종종 밤중에 홀로 산을 오른다. 내가 내 낡은 일기장을 구덩이에 묻으면, 그녀가 나의 꿈속에 나타나 그녀의 못다 이룬 소망들을 내가 대신 이뤄 주기를 바란다. 나는 점점 그녀처럼 변해가고, 더이상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마침내, 나의 꿈들은 나를 '그 동굴'로 다시금 이끈다. 눈이 내린다. 사람의 형상을 한 그녀가 나타나고, 동굴은 밝고 따뜻한 끝없는 터널이 된다. 그녀의 얼굴을 만져보지만, 숨결 없는 입술만 스칠 뿐이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동굴의 출구로 나를 데려가고, 그곳에서 내 낡은 일기장을 묻은 구덩이를 발견한다. 그 곳에서 나는 잊고 있었던 십대의 소녀의 모습을 본다. 그것은 나였다.

기획의도

본 영화는 살면서 처음으로 가까운 이를 떠나 보낸 나의 개인적인 여정을 다룬 이야기이다. 첨첨는 죽기 전, 동굴에서 나에게 편지를 썼다. "이산,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돼." 살아남은 성유는 나에게 첨첨와 자신이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누구든 여기서 살아서 나가게 되면, 언젠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는 약속. 나는 그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일에서 부재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유언을 실행에 옮기고자, 내가 받은 충격과 슬픔을 부정했다. 사고가 있는 후, 나는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다. '지난 생애'와 '다음 생애.' 사고 전에 썼던 일기와 사진들을 모두 '지난 생애'에 넣고, '다음 생애'에는 첨첨의 소망에 관한 것들로 채워 넣었다. 나는 그녀가 생전에 즐겨 하던 것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했을 법한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 성유와 산에 오르고, 그녀가 쓴 시와 일기를 출간하고, 이들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다. 오랫동안 나는 그 일을 겪고도 상처받지 않은 강인한 사람임에 강한 자부심을 느꼈었다.

하지만 '사랑'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나는 점점 상실감을 느꼈다. 마치 내 안에 캄캄한 구멍이 뚫려 있는 듯했지만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우연히 '지난 생애' 파일을 다시 열어 보고 나서야, 내가 두고 온 십대의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잃어버렸던 건 내 안에 있는 십대의 나 자신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사고 후 나는 십대의 나를 맘 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스스로 찾을 수 없도록 했다. 어른이 되는 것은 십대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어른이라면 강인해야 하고 약해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본 영화는 내 안의 '동굴'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십대 소녀를 구해내고 사랑하려는 데에서 비롯한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어른이 되는 것"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한다.

제작사

Svemirko Film Productions

필리핀 출신 베니스 아티엔사와 대만의 판 우가 공동 창립한 스베미르코 필름 프로덕션 Svemirko Film Productions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독창적인 다큐멘터리를 제작 및 연출한다.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작품으로는 <바다에서 마지막 날들> (베니스 아티엔사 감독), <눈이 녹는 계절>, <XiXi> (판 우 감독)가 있으며, 비전 뒤 릴, 리스본 독스, 독엣지 콜 카타, 인도네시아 독스 바이 더 씨, 시넥스 중국 다큐멘터리 포럼 등의 세계 영화제들에 초청된 바 있다. 아티엔사와 우는 IDFA 아카데미 수료자로, 현재 IDFA 프로젝트 스페이스와 CIRCLE Women Doc Accelerator 2020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며, 유럽 다큐멘터리 연합(DAE)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감독

로 이산

believewithlie50@gmail.com

Afterwards | 연출, 사진, 편집 | 2018

2018 New Taipei City Documentary Award

Seaside | 연출, 사진, 편집 | 2017

Alo'aloan | 연출, 사진, 편집 | 2017



프로듀서

우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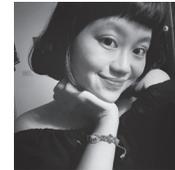
jadewu1228@gmail.com

The Scents | 연출 | 2019

A Roof in Common | 연출 | 2018

Koike Kouji | 연출 | 2015

2015 PTS View Point New Talent Award



조 지란

zilancho@gmail.com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한다 The Tree Remembers | 제작 | 2019

201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떠도는 삶 Floating Lives | 제작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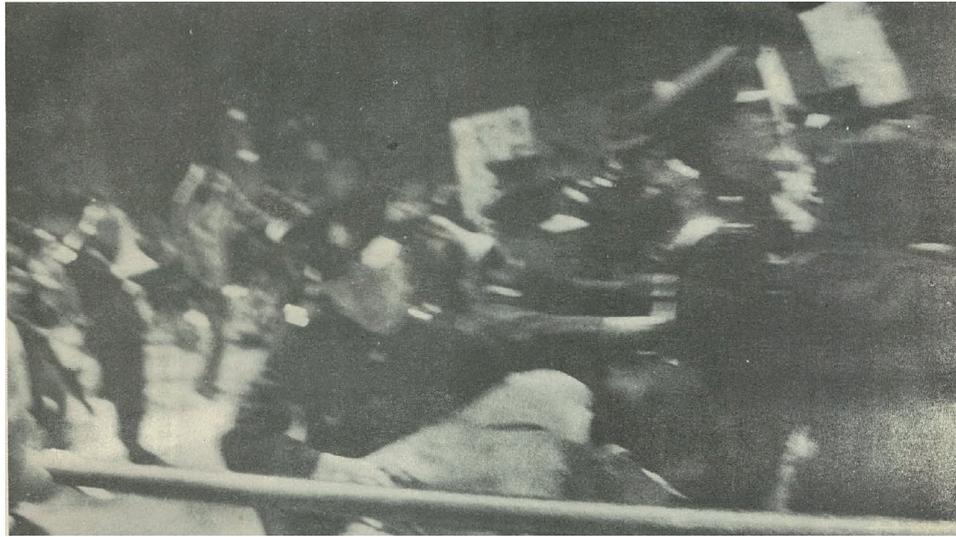
2010 부산국제영화제

Contact Prints of Being Canal | 제작 | 2018

Mukai's Wedding Mukai | 제작 | 2017

저항백주: 시대에 맞서다 Against the Day

홍콩 | 광동어, 영어, 일본어 | 100min | DCP
 실험적, 역사, 사적&관점, 사회&인류



<저항백주: 시대에 맞서다>는 『70's Bi-Weekly』(70년대 격주간지)에 대한 이야기이자, '열화의 시대'의 사회운동과 당대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시놉시스

<저항백주: 시대에 맞서다>는 1970년대 홍콩의 아방가르드 잡지인 『70's Bi-Weekly』에 관한 이야기이다. 영화는 당대 홍콩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해당 잡지가 출범하고 해체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0년대 홍콩 '열화의 시대'의 사회운동과 당대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1967년의 반영(反英) 시위와 그 여파에도 홍콩 시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1970년대 초 홍콩의 젊은이들은 교육 체제에 반기를 들며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고, 나아가 '다오위다오(조어도) 방어'라는 명목을 내세우는 식민 체제에도 대항하고 나섰다. 급진파 사상과 현대 미술이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일부 시위대는 무정부주의로 전향했고, 이것이 홍콩 사회를 넘어 세계 해방의 길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70's Bi-Weekly』의 젊은이들이었다. 응중인(Ng Chungyin)과 어거스틴 치우위 목(Augustine Chiu-yu Mok)이 이끌었던 해당 잡지의 주요 독자층은 행동주의, 반자본주의와 반식민주의 사상을 가진 젊은이들이었다. 『70's Bi-Weekly』지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을 내세웠고, 홍콩 사회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시위는 점점 수그러들었고, 내부 의견 충돌도 생겨나 해당 잡지는 결국 출범한 지 3년 만에 폐간되었다. 하지만 『70's Bi-Weekly』지가 남긴 유산은 오래도록 남아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이들은 무엇을 했으며 이들이 홍콩에 남긴 사상과 이야기는 무엇인가? 본 영화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의문들에 대해 보고자 한다. 이들의 '실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홍콩 사회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홍콩은 또 다른 출구를 모색할 수 있을까? '열화의 시대'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 한때 홍콩 사회운동의 선봉으로 여겨지던 『70's Bi-Weekly』의 젊은이들은 1970년대에 무슨 일을 겪었는가? 첫 번째 간행본이 출간된 이후로, 『70's Bi-Weekly』지는 줄곧 영국 정부의 감시 하에 있었다. 영국 정부는 '불법 출판행위'라며 모든 간행본들을 압수한 적도 있었다. 잡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식민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고 『70's Bi-Weekly』지의 임원들은 감시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 영화는 사라진 간행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1970년대 홍콩의 사회 운동을 보여준다. 당대 장엄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사진, 실험 영화를 통해 무정부주의 젊은이들의 기억들과 사상,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당시 세계 곳곳에서 그리했듯이, 『70's Bi-Weekly』의 젊은이들 또한 소형 카메라로 시위나 일상생활을 담은 단편 영화를 제작하곤 했다. 본 영화는 다양한 자료와 더불어 관계자들과 나눈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1970년대 홍콩 젊은이들의 시각적 경험과 기억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70's Bi-Weekly』의 이야기를 통해 본 영화는 홍콩 사회운동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홍콩 시민들의 정체성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기획의도

『70's Bi-Weekly』이야기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19년 범좌인 인도법 반대 운동 이후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이다. 역사는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간다. 『70's Bi-Weekly』지 구성원들의 시위에서 '분권적 리더십'과 융통성 있는 전략들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위대와 홍콩에서 목격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양상이다. 1971년 초 시위가 정점을 찍은 것은 경찰의 폭력 행사 때문이었다. 1970년대의 홍콩은 경제부흥기에 팽배했던 자본주의 직업관인 '사자산정산'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젊은이들의 정체성, 독립성 그리고 행복한 삶을 찾고자 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70년대 홍콩에서 반식민주의와 문화적 정체성을 위해 싸웠던 시위대들이 이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홍콩의 장대한 역사적 서사에서 『70's Bi-Weekly』의 '무정부주의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는 힘들다. 본 영화는 이 퍼즐 조각을 홍콩 역사라는 거대한 퍼즐에 맞춰보고자 한다. 『70's Bi-Weekly』의 역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때의 젊은이들은 각자 다른 길을 택했을 뿐. 어거스틴 목과 같은 이들은 신념을 꺾지 않고 예술에 전념하며,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아닌 홍콩의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나서기 위해 이념의 색깔을 바꾼 이들도 있고, 방향을 잃은 이들과 홍콩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다. 『70's Bi-Weekly』의 발자취와 영향력은 미술, 연극, 음악, 영화 등 홍콩의 다양한 영역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1970년대 후반 홍콩 영화계에 불어온 '뉴 웨이브'는 『70's Bi-Weekly』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점이 『70's Bi-Weekly』지의 역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지점이다.

목표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20.03 - 2020.12
제작	2021.01 - 2022.01
후반작업	2022.01 - 2022.12
제작완료	2022.12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1,857,600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5,000,000
Culture & Media Education Foundation	₩12,386,400
Step Forward Multi Media	₩7,741,200

제작사

Rabbit Travelouge

2008년에 리타 후이가 설립한 홍콩 소재의 래빗 트래블로그 Rabbit Travelouge 는 독립영화와 예술 영상 제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 작품 <만성 중독> (2009)은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의 뉴 커런츠 부문에 초청되었다. 두번째 장편 영화 <곡상녀> (2013)는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홍콩독립영화제, 남대만영화제를 비롯해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감독

박형 필립 호
hoarnam@gmail.com

In the Wild | 조연출 | 2018



프로듀서

리타 후이
panda4red@gmail.com

In the Wild | 연출 | 2018

Pseudo Secular | 연출 | 2016

곡상녀 Keening Woman | 연출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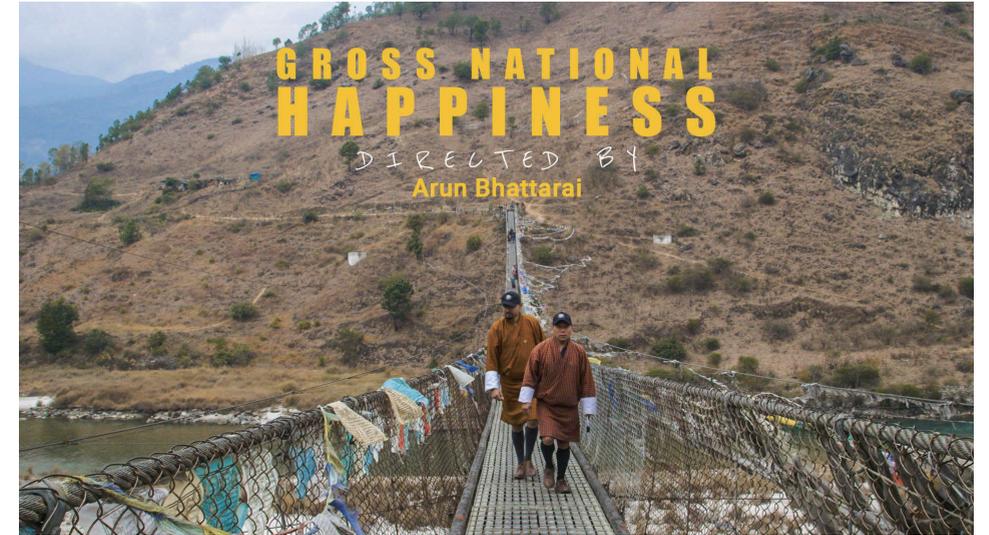
2013 부산국제영화제

만성중독 Dead Slowly | 연출 | 2009

2009 부산국제영화제 - 뉴 커런츠 상

GNH: 국민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부탄 | 중카어, 네팔어, 영어 | 75min | DCP
사회&인류



아마르와 구나라지는 절친한 친구이자, 부탄의 행복부 소속 직원들이다. 히말라야 산에서 사람들의 행복도를 방문 조사하는 이들은 꿈을 좇는 다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난다. 본 영화는 모자이크 기법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전달하는 로드무비이다. 오랫동안 폐쇄적이었던 국가 부탄의 행복부가 만들어 낸 정체성, 그 이면에 있는 사회의 진정한 소망을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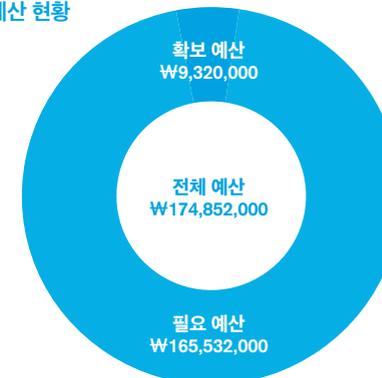
목표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20.06 - 2020.12
제작	2021.01 - 2022.01
후반작업	2022.02 - 2022.09
제작완료	2022.10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2,400,000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5,000,000
Dhaka Doc Lab - Best Pitch Award	₩1,920,000

시놉시스

머나먼 곳의 한 나라에서는 국민행복부의 직원들이 행복지수 향상 5개년도 계획을 위해 행복도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런 나라가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 어렵겠지만, 부탄에서는 행복이 전부이다. 본 영화는 미국의 유명 코미디 2인조 로웰과 하디처럼 괴짜 콤비자 행복부 직원인 아마르와 구나라지의 여정을 그린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일반인들을 만나는데, 행복을 좇는 사람들의 개인적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 구나라지는 진지하고 감정적인 남자인 반면, 아마르는 신봉감을 찾는 데에 열심인 로맨틱한 남자이다. 아마르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다. 한편, 국영 방송에서 역대 국왕들의 연설과 유치한 노래, TV프로그램을 통해 GNH(국민행복지수)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인의 차원에서 행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이다. 대중적인 행복의 순위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만, 개인적인 행복은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찾고자 한다.

기획의도

나는 어릴 적부터 학교와 TV에서 GNH에 대해 지겹도록 들으며 자랐고, 심지어는 국민 행복의 날을 기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없었다. 얼마 전 처음으로 부탄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서야 부탄의 이러한 패러다임이 GNH를 널리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내게 종종 묻곤 했지만, 나는 부탄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행복'을 기초로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 설명을 할 수도, 스스로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부탄은 마지막 남은 지상낙원이라는 환상의 신비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탄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지인의 관점에서 GNH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세계적 유행병이 돌고 있는 지금,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마음이 따스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이것은 예술가로서 우리가 가진 책임 중 하나이다.

제작사

Sound Pictures

사운드 픽처스 Sound Pictures 는 2015년 아룬 바타라이가 설립한 회사로, 창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부탄과 해외 관객들에게 부탄의 이야기를 전달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공동 제작으로 참여한 <부탄의 후계자들>은 2017년 IDFA에서 상영하였고 세계 각국의 영화제, 극장, TV를 통해 선보였다. 2019년에 제작한 <Kelden>은 KBS, 일본 NHK, 대만 PTS, 싱가포르 Mediacorp에서 방영되었다. 현재는 <GNH: 국민행복지수>와 더불어 2019년 IDFA에서 IF/Then Global Pitch 상을 수상한 <Mountain Man>을 제작 중이다.



감독&프로듀서

아룬 바타라이
anuranun@gmail.com

Kelden | 연출, 제작 | 2019

부탄의 후계자들 The Next Guardian | 연출, 제작 | 2017

2019 MOMA Doc Fortnight

2017 IDFA 신인 경쟁

프로젝트 펀드

붉은어깨도요를 기억하니? I am the Sea

한국 | 한국어 | 100min | DCP
환경&자연, 사회&인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진 갯벌과 새들, 어민들의 삶을 17년째 조사하고 기록해온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그들의 기록이 이제 증거가 된다.

목표

투자 유치, 선판매, 제작지원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06.01 - 2016.06
제작	2016.07 - 2020.11
후반작업	2020.12 - 2021.06
제작완료	2021.06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5,000,000
DMZ Docs Fund - DMZ프로젝트펀드	₩30,000,000
영화진흥위원회 -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지원	₩130,000,000
포드 환경기금	₩10,000,000

시놉시스

매월 첫째 주말이면 어김없이 '새만금'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다. 목수, 학생, 인류학자, 작가, 농부... 하는 일도, 사는 곳도, 나이도 다양한 이들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17년 동안 매월 자발적으로, 새만금의 새들과 주민들의 삶을 관찰하고 조사해 왔다. 33.9km에 달하는 거대한 방조제가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바다를 막은 이후, 갯벌의 조개들과 새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시민조사단은 깊숙이 들여다보고, 듣고, 기록해 왔다. 정부와 개발업자들이 홍보하는 화려한 청사진, 그 이면의 진실은 시민조사단이 기록한 수만 장의 사진으로, 어촌 주민들의 육성을 녹음한 음성 파일로, 수첩의 빼곡한 메모로, 몇 권의 두툼한 보고서로 남았다. 그 어떤 학자와 전문가도 하지 않은 중대한 기록을 가난한 시민들이 묵묵히 해 온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새만금의 목격자이자 증인인 시민조사단의 기록과 기억에 관한 영화이다. 이들의 기록과 기억이 없었다면 산산이 흩어지고 역사에서 지워졌을 새들과 사람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진다.

기획의도

사상 최악의 생태파괴, 새만금 간척사업을 막고자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2006년 4월, 거대한 방조제가 바다를 가로막았다. 사람들은 '진 싸움'을 잊었다. 모두가 포기한 새만금을 17년간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고 희망이다. 30년 전 군부독재 정권이 시작한 거대한 토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갯벌 공동체를 폭력적으로 파괴했는지, 시민조사단은 그 현장의 목격자와 기록자가 되어 왔다. 나는 이들의 활동과 이들이 남긴 기록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재판'의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 영화는 미처 기록으로 남지 못한 이들의 기억 또한 소환하고자 한다. 증발하기 전에 이들의 기억을 카메라에 붙잡아 두고자 한다. 기록은 힘이 세다. 새만금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끝난 일'로 생각했던 나는 어느새 새만금 한복판에 서 있다. 시민조사단과 함께 새만금 사업의 이면을 기록하는 사이, 나는 나 자신이 새만금 사업의 피해자가 되어있음을 발견한다. 갯벌이 말라 만들어진 거대한 황무지는 엄청난 초미세먼지를 일으킨다. 갯벌이 살아있었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놀 수 있었을 생명의 땅이, 이제는 재앙의 땅이 되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새만금' 영화를 만드는 일은, 이제, 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되었다.

트리트먼트

2006년 6월, 방조제 공사가 강압적으로 끝난 2개월 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새만금 계화도 갯벌로 갔다. 죽어버린 수많은 조개들과 도요새들, 깊은 한숨을 내쉬는 어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촬영한 테이프를 서랍 깊숙이 넣고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새만금'을 잊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나는 우연히 '새만금의 도시' 군산에 살게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난다. 생업으로 목수 일을 하는 오동필 씨는 시민조사단의 창립 멤버이자 조사단을 이끄는 단장이다. 그는 나를 갯벌로 데려간다.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서 도요새와 저어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한 갯벌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본 나는, 놀라움과 고마움, 미안함, 불안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동필을 따라 다시 새만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정부와 개발업자들은 갯벌을 매립해 육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와 국제공항, 수변도시를 세우겠다고 온갖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러나 30년째 공사 중인 '새만금' 사업은, 수십조 원의 세금만 낭비하며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막대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강행된 새만금 간척사업. 그 이면의 진실은 시민조사단의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학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진실을 기록하자', '법정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가 증거를 모으고 증인이 되자'. 이렇게 시작된 시민조사단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두 발로 현장을 걸어 다니며 조사했고 간헐적으로 갯벌의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왔다. 그 어떤 전문가도 하지 않은 중대한 기록을 가난한 시민들이 묵묵히 해 온 것이다.

2020년은 새만금 방조제 문을 열어 만경강, 동진강이 바다와 만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즉 해수유통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부가 결정하기로 예정한 해이다. 시민조사단은 청춘을 바친 자신들의 기록이 증거가 되어 갯벌을 되살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제작사

스튜디오 두마 | oneday2008@naver.com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 환경과 생태에 관한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왔다.



감독

황운
oneday2008@naver.com

- 광장의 닭[오피니버스 다큐영화 '광장'] | 연출 | 2017
-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잡식가족의 딜레마 | 제작, 연출 | 2015
- 2015 베를린국제영화제
- 2015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2014 서울환경영화제 - 대상
- 어느날 그 길에서 | 제작, 연출 | 2006
- 2006 부산국제영화제
- 침묵의 숲 | 제작, 연출 | 2004
- 2004 부산국제영화제
- 작별 | 제작, 연출 | 2001
- 2001 아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우수상
- 2001 부산국제영화제 - 운파상
- 2001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듀서

김성환
docunamu@naver.com

- 월성 | 연출 | 2019
- 2019 서울환경영화제 - 대상
- 철규 | 제작 | 2018
- 2018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졸업 | 제작 | 2018
- 2018 서울독립영화제 - 최우수 작품상
- 우리산이야 촬영, 연출 | 2003
- 2003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 김종태의 꿈 | 촬영, 연출 | 2002
- 2002 인권영화제 - 올해의 인권영화상
- 동강은 흐른다 | 촬영, 연출 | 1999
- 1999 서울국제다큐영상제 - 대상

하나코리아 HANA KOREA

한국, 덴마크 | 한국어 | 90min | DCP, MOV
사적&관점, 사회&인류, 스포츠, 전쟁&분쟁, 하이브리드 다큐멘터리



<하나코리아>는 탈북 여성 효진이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가는 여정을 따라간다.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치러내야 했던 효진,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선택이었을까? 과연 그녀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목표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9.01 - 2020.02
제작	2020.02 - 2021.01
후반작업	2021.02 - 2021.08
제작완료	2021.08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Sonntag Pictures	₩46,100,000
자체 확보 Seesaw Pictures	₩10,000,000
DMZ Docs Fund - DMZ프로젝트 펀드	₩15,000,000
서울영상위원회- 로케이션 헌팅 지원	₩1,630,000
CPH:DOX 2020 Eurimages Co- Production Award	₩20,000,000
Danish Film Institute	₩33,000,000
Statens Kunstfond	₩5,350,000

시놉시스

<하나코리아>는 하이브리드 다큐멘터리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낸 탈북자 효진에 대한 이야기이다. 북한 독재 정권의 감시와 억압 속에 살아온 효진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유를 찾아가는 한 개인으로서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 영화는 효진의 목소리를 따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강도 높은 국정원의 조사 과정을 거친 후,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자신의 새로운 국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나가는 과정을 픽션 스타일로 보여준다. 높은 자살률, 고도의 경쟁을 감내해야 하는 스트레스 사회이지만, 한편으로 전통과 지위를 중시하는 보수적이며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 모순 가득한 도시에서 효진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사회적 개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온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아간다는 우리는 실제로 자유로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라고 웃어 보이는 효진에게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효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면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의 역설을 들여다 본다.

기획의도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2010년 현충일,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두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한국의 분단 상황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탈북민들과 하나원에 대한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 당시 만난 이들은 나를 매우 환영하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고, 무엇보다 왜 덴마크라는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는지 궁금해했다. 대부분 미디어는 분단 상황과 정치적인 이슈에만 관심을 가지며, 북한과 탈북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만 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때 탈북민들에게는 아직 전하지 못한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려운 여정을 거쳐 남한에 도착한 탈북민들과 이들이 적응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으로 카메라를 돌리려 한다. <하나코리아>는 탈북민들의 눈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순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제작사

시소픽처스 | contact@seesawpics.com

시소픽처스는 우수한 한국 다큐멘터리의 해외 배급을 전담하며 아시아 다큐멘터리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온 오희정 프로듀서가 설립한 회사이다. 유럽 시장에서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국제 공동 제작 및 해외 배급 분야에서 인정받는 제작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탁픽처스 | contact@sonntagpictures.com

손탁픽처스는 코펜하겐에 기반을 둔 제작사로 국내외 관객을 위한 작품성 있는 작가주의 다큐멘터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의 Spaett, 스웨덴의 Mantaray Films, 한국의 시소픽처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화를 제작 중이다.



감독

프레데릭 쉴베르
info@frederiksoelberg.dk

고스트 타운 DOEL | 연출 | 2018

2018 CPH:DOX

2018 Sheffield Doc/Fest

2018 Visions du Reel,

2018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Inside The News | 연출 | 2016

Dinner on the West Coast | 연출 | 2016

They Have Sold the Lungs of the World | 연출 | 2010



프로듀서

오희정
hj.oh.film@gmail.com

다공성 계곡2: 트릭스터 플롯 | 제작 | 2019

2019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익스팬디드

사막의 진주 | 제작 | 2019

2019 암스테르담국제다큐영화제 장편부문 - 경쟁

그날, 바다 | 제작 | 2018

피의 연대기 | 제작 | 2017

201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다큐멘터리 옥랑문화상

2017 서울독립영화제 - 새로운 시선상

더 플랜 | 제작 | 2017



스톡만 사라
sara@sonntagpictures.com

Being Eriko | 제작 | 2020

BOBBI JENE | 제작 | 2017

ARMADILLO | 제작 | 2010

마지막 겨울 No Winter Holidays

네팔, 루마니아 | 네팔어 | 75min | DCP
예술&문화, 젠더, 생활, 사적&관점, 사회&인류, 나이



70대의 두 여인은 한때 같은 남편을 둔 적이 있다. 이제 과거를 잊고 겨우내 텅 비고 눈이 쌓인 히말라야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한다.

목표

제작비 마련, 투자 유치, 세일즈사&배급사 미팅

예산 현황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8.08 - 2019.08
제작	2019.12 - 2021.10
후반작업	2020.09 - 2021.03
제작완료	2021.05

확보 예산

자체 확보	₩93,600,000
DMZ Docs Fund - DMZ프로젝트펀드	₩15,000,000
Documentary Resources Initiative 2019	₩1,800,000

시놉시스

눈이 쌓인 텅 빈 도르 계곡에는 툴리와 칼리마만이 남아 있다. 이들의 임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이주한 마을 주민들이 남기고 간 빈집 200채를 지키는 것이다. 하루에 두 번 순찰을 하며 도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툴리와 칼리마는 동갑이고, 항상 도르에서 살았으며, 심지어 남편까지 함께 공유했다. 둘의 공통점은 이게 전부다. 툴리의 남편은 툴리에게 말하지 않고 칼리마와 결혼했다. 지금은 가깝지만 한때는 라이벌이었다.

툴리는 포크 가수였고 지금도 예술가처럼 살고 있다. 그녀는 줄담배를 피우고 알코올중독이며 집안일을 끔찍이도 싫어한다. 건강이 나빠져서 거동도 불편하다. 칼리마는 그녀의 집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다. 바깥세상 이야기를 듣기 위해 라디오를 듣는다. 딸에게 전화로 신발, 음식, 비타민 등을 주문한다. 칼리마는 앞을 바라보고, 툴리는 과거에 발이 묶여 있다. 하루가 저물어 갈 때 두 여인은 술을 마시며 노후의 문제를 숙고한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해석하고 건강이나 고통 없는 죽음을 위해 기도한다. 차이점을 제쳐두고, 그들은 임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순찰하던 집 몇 채에 도둑이 들고 그들은 마을 위원회에 벌금을 물게 될까봐, 그리고 다음 겨울에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한다.

기획의도

툴리와 칼리마는 네팔 인구의 13%인 '낮은 카스트' 혹은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러한 다름에 대한 내용보다는 다름이라는 차이를 채워가고 이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툴리나 칼리마처럼 마을을 떠나는 것을 거부하는 식구들이 있다. 네팔 전역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살기로 선택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영화와 미디어는 항상 시골 사람들을 어리석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우리는 영화에서 이들에 대한 좀 더 성숙한 묘사를 제공하고 시골 생활의 깊이 있고 인간적인 면을 전달하고 싶었다. 2018년 한 뉴스 보도를 통해 툴리와 칼리마를 알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네팔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네팔의 다큐멘터리 문화는 영상 뉴스와 기업 영상 등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는 이 인식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영화적이고 또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싶다.

트리트먼트

늦가을, 도르 마을의 사람들은 깊은 계곡의 집들을 뒤로하고 추운 겨울을 피하고자 남쪽으로 향한다. 툴리와 칼리마는 마을 전체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인 툴리는 종종 몸이 안 좋아 순찰을 빠진다. 칼리마가 대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가족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게 지낸다. 눈 속 마을에 고립된 여인들은 서로 곁을 지켜주며 옛 추억을 이야기한다. 툴리는 내심 자신도 죽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죽은 남편 생각을 하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보낸다. 칼리마는 하나 있는 딸과 통화를 하며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겨울 폭설에 툴리의 병세는 악화되고 그녀는 계곡에서 사라진다. 동시에 칼리마의 소들은 길을 잃고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칼리마는 딸이 인도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만, 툴리는 아직 소식이 없다. 계속되는 눈 때문에 칼리마는 경계 근무를 할 수 없고, 나중에 몇 채의 집이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동안 날씨가 좋아졌을 때 툴리가 돌아온다. 도난당한 감자를 요구하는 집주인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된다. 툴리와 칼리마는 나름 영리하게 대처하지만, 마을 위원회가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할까 봐 걱정된다. 딸이 인도에 있어 통화할 수 없는 칼리마는 우연히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를 라디오에서 듣는다. 소는 다시 실종되고 칼리마는 소가 늑대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 툴리는 다시 술에 빠져 근무를 놓친다. 도난당한 집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물건들이 없어진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도로로 돌아온다. 이제 툴리와 칼리마는 손실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한다. 더 나쁜 일은 마을 위원회가 내년 겨울에도 그들을 고용해 줄 것인지, 해고를 할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제작사

Salpa Films

살파 필름스 Salpa Films 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독립 영화 제작사이다. 감독이자 프로듀서인 라잔 카셰이 2017년에 설립했다. <마지막 겨울>의 메인 네팔 제작사이다.



감독&프로듀서

수니르 판디
sunir129@gmail.com



라잔 카셋
salpafilms@gmail.com

안개 속의 나무 | 연출, 각본 | 2019
Split Ends | 연출, 각본, 편집 | 2016
더 골든 힐 | 연출, 각본 | 2015

후반작업 지원

펀드

고양이들의 아파트 Cats' Apartment

한국 | 한국어 | 95min | DCP
환경&자연, 사회&인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주민들의 돌봄 속에서 평화롭게 살던 고양이들이 있다. 주민들은 모두 이사를 하였지만 고양이들은 아파트를 떠나지 않는다.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그곳에 살고 있던 고양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목표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7.01 - 2017.04
제작	2017.05 - 2019.11
후반작업	2019.12 - 2020.06
제작완료	2020.09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10,063,490
서울영상위원회	₩20,000,000
영화진흥위원회	₩60,000,000
SJM문화재단	₩45,000,000

시놉시스

서울의 동쪽 끝에 재건축을 앞둔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주민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간절히 원했고 재건축이 결정되자 빠르게 아파트를 떠났다. 주민들이 사라진 아파트 단지는 아주 잠깐 고양이들의 것이 되었다. 그곳에는 평화와 고요함 만이 가득했다. 한편 여전히 아파트를 떠나지 않는 고양이들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인다. 그들은 고양이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살던 곳을 좀처럼 떠나기 싫어하는 고양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획의도

대도시의 확장 속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특히 거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익 증대라는 목표 속에 현재 가장 첨예한 화두가 되었다. <고양이들의 아파트>는 고양이들도 아파트의 주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다.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존재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살아가고 있다. 고양이의 시선으로 아파트의 소멸을 지켜보고자 했다.

제작사

영화사 못 | jayzoo@naver.com

영화사 못 Mot Films 은 영화감독 정재은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자체 제작을 통해 작품 제작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2012년 설립한 다큐멘터리 영화 전문 제작사이다.

극장용 다큐멘터리 영화 이외에도 건축이나 도시환경에 대한 각종 전시 영상과 아카이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신인감독들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기획과 제작을 지원하고 기여하고자 한다.



감독

정재은
jayzoo@naver.com

나비잠 | 연출 | 2018

아파트 생태계 | 연출 | 2017

2017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작

말하는 건축 시티:홀 | 연출 | 2013

말하는 건축가 | 연출 | 2012

태풍태양 | 연출 | 2005

여섯 개의 시선(그 남자의 사정) | 연출 | 2003

고양이를 부탁해 | 연출 | 2001

프로듀서

정희태
hite21c@hanmail.net

319 2020-09-19 | 20:00 - 21:36

메가박스 백석 1관



608 2020-09-22 | 14:00 - 15:36

메가박스 백석 3관



한국 | 한국어, 일본어 | 94min | DCP
역사, 사회&인류



식민과 분단의 아픔을 가진 재일조선인의 삶, 일본 땅에서 당당한 조선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재일조선인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본다.

목표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6.01 - 2016.10
제작	2016.11 - 2020.02
후반작업	2020.02 - 2020.08
제작완료	2020.08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67,000,000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사전제작지원	₩20,000,000
전주국제영화제	₩5,000,000

시놉시스

나는 2002년 금강산에서 재일조선인들을 처음 만났다. 그들은 북한에 여러 번 왔지만, 한국에는 한 번도 와보지 못했다고 했다.
재일조선인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나는 그들을 만나기 일본에 갔고 그렇게 15년간 만남을 이어오면서 지금껏 알지 못했던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일본 사회의 차별 속에서도 조선사람으로 곳곳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이유를 듣게 된다.

기획의도

식민과 분단의 아픔을 가진 재일조선인의 삶을 조명하고, 당당한 조선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재일조선인들에게 응원을 보내고자 한다.

제작사

엠앤씨에프, 다큐창작소 | eunsungpd@gmail.com



감독

김철민
chungchun.kim@gmail.com

불안한 외출 | 연출 | 2014
걸음의 이유 | 연출 | 2011



프로듀서

조은성
eunsungpd@gmail.com

시민 노무현 | 제작 | 2018
그라운드스 이방인 | 제작 | 2014

407 2020-09-20 | 14:00 - 15:37
메가박스 백석 1관

12 GV

713 2020-09-23 | 16:30 - 18:07
메가박스 백석 2관

12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

두 사람을 위한 식탁 A Table for Two

한국 | 한국어 | 90min | DCP, MOV
역사, 젠더, 사회&인류



세상엔 엄마와 딸, 둘 뿐이다. 엄마와 딸은 식탁에 마주 보고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세상에 가장 힘들다.

목표

공동 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 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예산 현황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8.06 - 2019.06
제작	2019.06 - 2020.12
후반작업	2021.01 - 2021.07
제작완료	2021.07

확보 예산

영화진흥위원회 -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지원	₩80,000,000
영화진흥위원회 - 차기작 기획개발펀드	₩5,000,000
KCA 다큐멘터리 분야 기획개발 지원	₩5,000,000

시놉시스

밥상 앞에서 엄마는 숨을 죽인다. 딸은 엄마의 미세한 숨소리를 느낄 정도로 예민하다. 바쁘게 젓가락질을 하지만 두 사람의 신경은 온통 화장실을 향한다. 딸은 오줌이 마려워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딸이 먹은 것을 토해낸다고 생각할 것이다. 집안 가득 두 사람이 웃으며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언뜻 보면 행복해 보이는 일상의 고요를 딸이 먼저 깨뜨리기로 결심한다. 딸은 엄마의 공간, 엄마의 세계를 떠나고 새로운 일상을 꾸려나간다. 엄마는 10년 만에 딸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기획의도

무주에 있는 한 대안학교로부터 <피의 연대기> 상영 요청이 온 건 2019년 6월이었다. GV 마무리에서 나온 차기작에 대한 질문에, 섭식장애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행사가 끝나고 학교를 떠나려던 날 붙잡은 건 박상욱 교감이었다. 백발이 반 이상 뒤섞인 단발머리, 웃을 때마다 양쪽으로 크게 벌어지는 입. 노동 운동을 하며 현대사의 수많은 굴곡을 거쳐 온 커다란 두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가 말했다. "내 딸이 10년 넘게 거식증을 앓고 있어요." 그때까지 해오던 모든 인터뷰를 중단하고 두 사람을 찍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나는 관계와 인정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보게 되었다. 먹지 않고 굶어가는 병, 토할 때까지 먹고 또다시 토하는 병 너머 생존에 대한 의지를 발견했다. 다이어트와 외모 집착으로 인한 병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이 병을 치유하고 이겨내는 과정은 결국 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관객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

트리트먼트

[딸]

나만큼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을 엄마로 둔 이도 없을 것이다. 엄마는 83년에 명문대에 입학해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도자기 인형을 만드는 공장에 위장취업했다. 여공들을 조직화하고 여성 노동운동사 최초로 국회의원화관을 점령하기도 했다! 그런 엄마의 눈부신 활약을 소재로 한 소설도 있다. 엄청나게 유명한 인터뷰도 있다. TV 다큐멘터리도 제작됐다. 엄마의 모든 과거는 눈이 부시게 빛난다. 어쩌면 이렇게 대단한 엄마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한순간에 망가트린 건 내가 태어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엄마]

나는 교감 선생님이야. 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는 아이, 학교 폭력에서 생존한 아이, 자살 시도를 한 아이들을 돌본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만 내 눈엔 아이들의 가능성이 보인다. 나는 아이들의 선한 면을 찾는다. 밤새 이어지는 하소연과 고민을 듣는다.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견딜 수 없는 건 딸의 병이다. 내 눈에 딸의 다른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딸은 곧 '그 병'이다. 10년 전 나는 수치스러웠다. 딸이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딸]

엄마는 말했다. 내가 엄마의 돈으로 학업을 이어가길 바랐다. 만류하는 엄마를 뿌리치고 거기로 서울로 이사가 채식 식당의 주방 보조로 취직했다. 나는 좋은 식재료를 고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하는 일이 즐겁다. 음식에 대한 내 사랑은 12년 전, 거식증에 걸렸을 때 시작되었다. 15살이 되던 해 나는 몸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뇌가 쪼그라들 때까지 먹지 않았다. 폐쇄 병동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2년 후 거식증에서 폭식증으로 증상이 바뀌었을 땐 하루 종일 먹고 밤새 토하며 음식을 생각했다. 내게 음식은 곧 엄마였다. 만질 수 없던 엄마, 어린 내 눈을 마주쳐주지 않았던 엄마, 첫 생리를 했을 때 문을 닫고 어디론가 나가버렸던 엄마, 글을 써오면 빨간 펜으로 틀린 곳을 먼저 표시해주던 엄마, '나'라는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삶이 늘 무겁고 지쳐 보였던 엄마.

[엄마]

나는 알고 있다. 딸에게 나는 엄마라기보다 아빠에 가까웠다는 걸.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고 짐승에 물리지 않을 정도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호자.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면, 조금은 달랐을 것이다. 딸을 볼 때마다 나는 안전하지 않았고 늘 위험 한가운데 살았던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이제와 무엇을 되돌릴 수 있을까? 나는 딸이 가장 힘겹게 투병하던 시기에 썼던 일기를 들춰본다. 나의 상담일지를 꺼내본다.

[딸]

나는 엄마의 세계로부터 탈출 중이다. 엄마의 집, 엄마의 공간, 엄마의 사람들, 엄마의 과거, 엄마의 불안, 엄마의

상처로부터. 서울 반지하 방에 집을 얻고 식당의 주방 보조로 일하며 음식 냄새와 땀에 젖어 살지만 매주 한 번 상담 치료를 받을 돈을 이제 스스로 벌고 있다. 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SNS 반응을 찾아보며 처음으로 성취감을 느낀다. 나를 봐주지 않던 엄마, 나를 보던 엄마의 불안한 표정에서 벗어나 내 음식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만의 일상을 꾸려나간다. 어쩌면 이 시간이 축적되어 엄마와 밥 같은 밥을 함께 먹는 날이 올지 모른다.

제작사

킴 프로덕션 | keam.productions@gmail.com

2016년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로 설립되었다. 같은 해 5월 JCC 재능교육 미술관 특별전 『해화동 사람들』의 전시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 전시 다큐멘터리를 제작·기획했다. 여성의 몸과 월경에 대한 다큐멘터리 <피의 연대기>는 2018년 1월 전국 40개관에서 개봉 및 약 100개 기관 및 단체에서 공동체 상영을 가졌다.



감독

김보람
keam.production@gmail.com

자매들의 밤 | 연출, 각본 | 2020
피의 연대기 | 연출, 편집 | 2017
2017 서울독립영화제 - 새로운시선상
201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다큐멘터리 옥랑문화상



프로듀서

박지혜
jipark3651@gmail.com

나의 숨기고 싶은 가족에게 | 제작 | 제작 중
자매들의 밤 | 제작 | 2020
아름다운 | 제작 | 2011
푸른 사막 | 제작 | 2011

세이모어의 청춘일기 Diary from the Battlefield

한국 | 한국어, 영어 | 90min | MOV
예술&문화, 역사, 전쟁&분쟁



스물네 살 생일에 전쟁터로 간 피아니스트. 그리고 그의 일기장 두 권에 둘러싼 한국전쟁의 기록. 일기와 다큐멘터리가 기록하는 '전쟁과 청춘 그리고 피아노'에 관한 이야기.

목표

투자 유치,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9.04 - 2019.08
제작	2019.08 - 2020.10
후반작업	2020.08 - 2020.12
제작완료	2020.12

예산 현황



확보 예산

경기도 오산시	₩140,000,000
---------	--------------

시놉시스

세이모어 번스타인은 뉴욕에 거주하는 피아니스트다.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93세. 70년 전 그는 미국 보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쟁은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비참할 만큼 가난했고, 아이들은 굶주렸으며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절대로 총을 듣지 않겠어!' 총 대신 무거운 그랜드 피아노를 트럭 위에 간신히 싣고 전선을 다니며 공연을 했다. 8개월 동안 100회 넘는 공연. 공연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열된 시간 속에 틈이 생기면 일기를 썼다. 푸른 눈의 젊은 피아니스트가 겪은 한국전쟁은 두 권의 일기장에 뿔뿔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전쟁이 자신의 삶과 음악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한 번도 그 일기장을 펼쳐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일기장을 보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을까. 그는 자신이 일기장에 물어버린 기억과 마주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기획의도

1951년 4월 24일, 스물네 번째 생일날, 세이모어 번스타인은 미 8군 보병으로 한국전쟁에 파병되었다. 8개월 동안 전쟁터를 누비며 100번이 넘는 공연을 했다.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중공군의 총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릴 때도 쇼팽을 연주했다. 그리고 밤이면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일기에 담았다. 그때의 생생한 기억이 두 권의 일기장에 남아 있다. <세이모어의 청춘일기>는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기획되었다. 아흔세 살이 될 때까지 그때의 일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을 만큼 잊고 싶었던 전쟁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낸다. 이것은 일기와 다큐멘터리가 기록하는 전쟁과 청춘 그리고 피아노에 관한 이야기다. 전쟁과 예술, 이 두 가지 테마는 국적과 언어와 상관없이 인류에게 커다란 울림을 준다. 세이모어 번스타인은 이제 평화로운 한국에서 다시 연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연주가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제작사

이노스토리 | origin0110@hanmail.net

2009년에 설립된 방송영상 프로덕션으로서, 역사, 휴먼,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주제 및 소재의 다큐멘터리를 기획, 제작해 지상파 채널 등에 방영해왔다.



감독

양진용
jinyong130@gmail.com

구조, To the Rescue | 연출 | 2019
2019 한국독립PD협회 - 대상
2019 한국PD연합회 - 작품상
불의 검 | 연출 | 2017
2017 한국독립PD협회 - 최우수상
한반도 대서사시 나무 | 연출 | 2015
2015 한국독립PD협회 - 대상



프로듀서

김현수
bluentree2009@gmail.com

우리집 쏜대 | 기획, 제작 | 2016
남자 | 기획, 제작 | 2012
아름다운 유년 | 연출, 제작 | 2001
2001 서울국제영화제

수카바티 Sukhavati: MADE IN ANYANG

한국 | 한국어 | 100min | DCP
예술&문화, 생활, 사적&관점, 사회&인류, 스포츠



팀을 잃은 서포터즈, 안양축구를 되찾기 위한 9년의 투쟁

목표

투자 유치,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9.07 - 2019.08
제작	2019.09 - 2020.12
후반작업	2021.02 - 2021.05
제작완료	2021.05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20,000,000
한국영화진흥위원회	₩50,000,000

시놉시스

“아주 붉은 것은 이미 보라색이다.”

안양종합운동장 한 칸에 걸려있는 이 문구는 A.S.U. RED(이하 RED)의 굴곡진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 RED는 K리그의 강팀 안양 LG치타스의 서포터즈였다. 최용수, 이영표 등의 스타가 즐비했던 치타스는 2000년에 리그를 제패한다. 하지만 2003년 시즌 종료 후 LG는 돌연 서울로 연고지 이전을 결정한다. 팀이 사라졌으니 서포터즈 RED 역시 사라져야 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간단하게 버려지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D의 투쟁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항의 성명과 시위로 연고 이전의 부당성을 알렸다. LG 제품을 불태우고, 국가대표 경기에서 홍염을 치켜들었다. RED는 안양시민구단 창단 운동을 시작했고, 9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응원할 ‘팀’이 생겼다. 안양시민구단 FC안양의 유니폼은 보라색이다. 중부 최대의 포도 생산지인 안양의 정체성을 새겼다. 그들을 잉태한 서포터즈는 아직도 RED라고 불린다. 아주 붉은 것은 이미 보라색이다.

기획의도

RED의 첫인상은 웃겼다. 악명 높은 홍염과 억울한 표정으로 외치는 뜻 모를 구호...

“와, 한국에도 이 정도의 훌리건이 있어?” 하고 놀라며 바라보는 괴짜들이었다. “팀 없는 서포터즈라니...”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내재된 절박한 스토리를 하나씩 알게 되었다. RED는 철저히 버림받았고 9년의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했다. 현대사회에서 자본의 법칙은 중력과 같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빨아들이고 만다. 그렇지만 RED는 중력을 거부했다. 그들은 거대기업과 정치인, 무기력한 패배감과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궁금한 것이 생겼다. “9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가요?” “음... 글썸요...? 슬?”

트리트먼트

“무시무시했죠”

다양한 사람들이 악명 높았던 RED의 역사를 회상한다. 서정원, 이영표 등 당시 선수들과 상대 구단 팬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서정원은 안양 LG치타스의 영웅이었다. 그렇지만 해외 진출 후 라이벌인 수원 삼성으로 이적하고 치타스의 공적이 되었다. 삼성과의 경기에서 서정원의 유니폼을 불태우는 RED. ‘안양축구’는 과격하고 독특했다.

2003년 말 안양 LG치타스는 서울로의 연고 이전을 통보한다. 이 사건은 당시 축구계 전체에 상처를 주었던 K리그의 ‘흑역사’이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스포츠 분야에서 업적이 필요했고 LG는 빅 마켓을 원했다.

연고 이전 확정과 함께 RED의 저항이 시작된다. LG 제품 화형식, FC서울 개막전 난입, 거리 행진, 국가대표 경기 퍼포먼스... 그렇지만 팀은 돌아오지 않는다.

안양은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일제강점기부터 공장이 들어선 도시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공업도시 안양의 전성기였다. 서울에 짓기 어려운 기피시설과 공장들이 속속 들어섰다. 서울에 치약, 통조림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경공업 공장이 많았다. 안양천은 지독한 냄새로 악명을 떨쳤다. 일자리를 찾아 외지인이 안양으로 몰려들었다. RED에는 이 노동자들의 2세들이 많다.

“저는 안양이 정말 싫었어요.”

카메라는 안양이 잃어버린 것들을 훑어간다.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안양 포도, 한국 최대의 영화 스튜디오였던 신필름, 수리산 자락의 수많은 무속인들, 공장들이 빠져나가 을씨년스러운 박달동의 풍경. 공업지대와 함께 형성된 유흥가에서 자란 김일주는 안양을 좋아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RED와 함께 FC안양을 응원하기 전까지는...

“수카바티, 안양!”

2012년 12월 28일, FC안양이 창단된다. 이제 이들에게도 목 놓아 응원할 ‘내 팀’이 생겼다. 안양시장이자 구단주인 최대호는 창단식에서 이렇게 외친다. “FC서울을 만나서 박살내야 합니다!” 2020년 시즌, FC안양은 1부 리그 진출과 꿈에 그리던 ‘복수’에 도전한다.

제작사

영화연구소 | notfree1976@naver.com

영화연구소는 2015년 설립된 영화제작사이다. 영화 본연의 재미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것이 영화연구소의 핵심 모토이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재를 가리지 않는다. 영화 그 자체만을 바라보며 영화연구소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감독

나baru
nabaru2@naver.com

1% 선배의 비밀 | 연출 | 2018

2019 프랑스 낭시영화제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우수상

두 번째 행군 | 연출 | 2017

바보들의 행군 | 연출 | 2014



선호빈

takeshi9@hanmail.net

B급 머느리 | 연출 | 2018

2018 성평등 문화콘텐츠상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7 18회 전주국제영화제

2017 춘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편부문 - 대상

강정 인터뷰 프로젝트 | 연출 | 2012

레즈(reds) | 연출 | 2011

2011 인디다큐페스티발

2011 서울독립영화제 - 특별언급상



프로듀서

박진석
notfree1976@naver.com

B급 머느리 | 제작 | 2018

2018 성평등 문화콘텐츠상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7 18회 전주국제영화제

2017 춘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편부문 - 대상



이호림

immune7@naver.com

인생공격 | 연출 | 2017

쓰레기덕후소셜클럽 Lady Trash

한국 | 한국어 | 78min | DCP
환경&자연, 젠더, 생활, 사회&인류



10년간 몸담았던 환경단체에서 나와 혼자가 된 베테랑 환경운동가 금자는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목표

제작비 마련, 투자 유치, 국내외 영화제 출품, 선판매, 세일즈사&배급사 미팅, 프로젝트 홍보&마케팅

예산 현황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8.07 - 2019.02
제작	2019.03 - 2020.12
후반작업	2020.11 - 2021.02
제작완료	2021.03

확보 예산

자체 확보	₩10,930,000
환경부	₩10,000,00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5,000,000
재단법인 숲과나눔	₩20,000,000
복센스	₩2,000,000

시놉시스

십여 년간 다닌 환경단체를 퇴사하고 쓰레기 문제에 꽂혀있는 '쓰레기덕후' 금자. 생리대 유해 물질 이슈화,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제화 등의 쾌거를 차례로 이뤄낸 빛나는 경력의 베테랑 환경운동가지만 정작 자기가 사는 동네의 시장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 몰아내는 것에는 진땀을 빼고 있다. 망원시장에서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 '알맹'을 시작한 금자의 첫 시도는 무참히 실패한다. 시장 상인들에게는 '환경부 소속도 아니요, 시민단체 소속도 아닌데 혼자 나대는 이상한 여자' 취급을 받기 일쑤고, 같이 일하는 '알짜'들과는 그의 불도저 같은 성격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환기를 위해 인도와 케냐로 떠난 여행에서도 금자는 하루 종일 쓰레기장과 시장만을 쏘다닌다. 플라스틱 통 대신 무화과 잎에 쌓여있는 과일들, 각자의 유리병에 우유를 담을 수 있는 '밀크 ATM'.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로 또 같이 다양한 운동을 꾸려 나가던 각지의 활동가들. 금자는 다양한 대안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안고 다시 망원동으로 돌아온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쓰기, 텀블러와 전용 식기 갖고 다니기, 시장 카페 안에 리플 샵 열기 등 이런 금자의 노력이 과연 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기획의도

금자는 지나 깨나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쓰레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쓰레기덕후'이고 나는 그런 금자를 따라다니는 '금자덕후'다. 쓰레기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썩지 않는 쓰레기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우리 동네 망원동의 문제이자 전 인류의 고민이다. 모두가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플라스틱의 편리함에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하다. 그 편리함을 거스르며 좀 더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쓰레기덕후들이 많아지고 망원시장에서 껌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으라며 비닐 없는 시장 만들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금자와 함께 하며 목격하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흩어진 개인들의 행동이 연결되면 이토록 거대한 플라스틱과의 싸움에서 서로에게 용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트리트먼트

#플라스틱의 탄생과 산업의 역사 - 그 시작은 코끼리와 당구였다. 상아를 대신할 당구공 공모에 당선된 그 '무연가'가 현재의 셀룰로이드이다. 이후 플라스틱이 산업화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의 배를 불리고자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조성하였고 그 결과로 지금의 인스턴트 문화가 형성되었다.

#금자는 누구인가 - 금자는 나의 친구로 직업은 베테랑 환경운동가다. 그는 파자마 캠페인, 플라스틱 어택 등을 통해 대형마트 24시간 금지와 생리대 전 성분 표시,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금지 등을 법과 제도로 이끌어냈다. 공적인 일로 만난 금자.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에 푹 빠져 있는 그가 궁금해진 나는 돌연 환경단체를 그만두고 홀로서기를 시작한 금자를 쫓기 시작한다.

#케냐와 인도, 그리고 귀국 후 시작된 금자와 '알맹'의 시도 - 퇴직금을 털어 비닐봉지의 규제가 가장 심한 케냐와 인도로 떠난 금자. 그곳에서 '알맹이만' 판매하는 관경을 목격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본인의 동네인 망원시장에서 변화를 모색한다. '알맹'이라는 자원봉사 모임을 꾸려 캠페인을 시작하지만 금자의 폭주기관차 같은 성격과 녹록지 않은 현실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과연 금자는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며 망원 시장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제작사

창작집단3355 | 3355film@gmail.com

창작집단3355는 세대 담론과 젠더 담론, 도시와 소수자성을 중심으로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예술가 그룹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배급사이다. '3355영화제', '다다름필름파티', '서대문시민영화제' 등의 대안 상영 프로젝트 또한 2012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감독

유혜민
yujc1084@gmail.com

쓰레기덕후소셜클럽(단편) | 연출 | 2019
여자는여자의미래다 | 연출 | 2018
열대야 | 연출 | 2013
국수 | 연출 | 2012



프로듀서

신혜인
hyeinshin@gmail.com

쓰레기덕후소셜클럽(단편) | 제작 | 2019
여자는 여자의 미래다 | 연출 | 2018



김문경
misspla2019@gmail.com

애국소녀 Patriotic girl

한국 | 한국어 | 90min | DCP
사적&관점



한국 민주화의 주역이라 자부하는 부모님은 나를 애국소녀로 길러냈다.
하지만 나는 커가면서 그들의 애국 신화의 모순을 발견하고, 진정 공동체를 위한 일이란 무엇인가 질문한다.

목표

프로듀서 영입,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9.03 - 2019.08
제작	2019.03 - 2020.12
후반작업	2020.12 - 2021.06
제작완료	2021.06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15,000,000
영화진흥위원회	₩5,000,000
EIDF 영피치	₩5,000,000
전주국제영화제	₩5,000,000

시놉시스

<애국소녀>의 감독이자 주인공인 '나'는 모범 공무원 아빠와 여성인권운동가 엄마와 살고 있다. 나는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게 '애국'이라는 엄마 때문에 어릴 적부터 집회에 끌려가야 했으며, 동시에 아빠의 애국심을 따라 국위선양 활동도 성실히 해야 했다. 두 부모의 직업은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신념은 동일했고 나는 그들을 선망하며 애국소녀를 자처했다. 하지만 완벽한 줄 알았던 부모의 애국심 속 인간적인 모순과 딜레마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자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성인이 된 소녀 앞에 탄핵과 #METOO 시국이 펼쳐진다. 아빠는 탄핵 시국에서도 그 정권을 위해 일해야 하는 딜레마를 겪고, 운동가 엄마 또한 어느새 공공기관의 관료가 되어 집회에 나가는 것에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두 부모를 보며, 나는 '애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질문을 던진다. 나는 이제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할까?

기획의도

한국 사회에서 386세대는 오랫동안 진보의 표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30년 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들은 어느덧 기성세대가 되었고, 이제는 자녀 세대들이 광장에 나와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 항쟁에서 2016년 촛불로 오기까지 우리는 '공공의 이익, 정의 그리고 애국'이란 이름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기도 했지만, 수많은 딜레마와 모순도 안고 살았다. 한국 현대사의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나의 가족사를 통해 시작하며, 이전 세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각자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의 시간 끝에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국가'를 꿈꿀 수 있길 소망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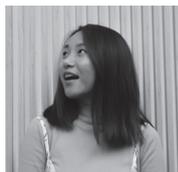
트리트먼트

어느 날 '나'는 창고에 쌓여있는 홈 비디오 수십 개를 발견하게 된다. 그 비디오 속에서는 할머니 생일잔치 때 애국 조화하는 모습, 2002년 월드컵 등 애국심이 꽃 피던 어린 시절이 담겨있다. 부모님은 우리 쌍둥이가 태어나던 날 군부독재를 청산하는 재판이 열렸던 것을 회상하며, 386세대로서 그들이 이룩한 민주주의 국가를 자랑스러워한다. 부모의 자부심과 달리, 나는 대학에 입학하던 해 국정농단 사건을 마주한다. 아빠는 하필 청와대에 배정이 되어 촛불 행렬을 역행하며 출퇴근을 한다. 엄마도 어느덧 준 공무원이 되어 활동가의 모습을 지워져 가고, #METOO라는 커다란 분기점 앞에서도 선뜻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들이 말했던 '애국'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두 부모는 늘 평등한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1등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외고 열풍에 합류했다가 명문대를 가려고 삼수까지 해야 했다. 나는 중고등학교 방송부를 하며 찍어 놓았던 영상들을 증거물 삼아 '애국'이란 이름으로 포장했던 모순들을 현재로 끄집어낸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갑자기 국경이 닫히게 되며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져간다. 2015년에 메르스 관련 업무를 맡았던 아빠는 그가 기반을 다진 K-방역시스템에 자부심을 느끼며, 코로나 또한 온 국민이 힘 모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한다. 감독 '나'는 다큐를 핑계로 관료주의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수많은 의문을 아빠에게 질문하고, 그는 평생 애국자라 사명을 가지고 일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코로나 19로 광장 또한 폐쇄되며 새로운 방식의 사회운동이 요구된다. 하지만 엄마는 미투의 후폭풍 이후 모든 전투 의지를 소진한 것 같다. 심지어 그녀는 직장까지 그만두며 쉬고 싶어 하고, 이제는 내가 그녀의 바통을 넘겨받아야 할 거 같다. 나는 부모의 애국을 넘어, 부끄럽지 않은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감독

남아름
namarum@gmail.com

핑크페미 | 연출 | 2018

2018 서울독립영화제

2018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나를 위한 변명 | 공동연출 | 2017

2018 인디다큐페스티벌

2017 도시영화제 - 우수상

홈그라운드 Homeground

한국 | 한국어 | 90min | DCP
젠더, 공간, LGBTQIA+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집보다 편한 레즈비언들의 홈그라운드

목표

공동 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유치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9.01 - 2019.08
제작	2019.09 - 2020.11
후반작업	2020.12 - 2021.04
제작완료	2021. 06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서울영상위원회	₩15,000,000
영화진흥위원회	₩40,000,000
한국콘텐츠진흥원	₩20,000,000
DMZ Docs Fund - 기획개발펀드	₩5,000,000

시놉시스

1970년대 서울 명동에 위치한 '샤벨'은 여성 전용 다방으로 치마 씨와 바지 씨라 불리던 레즈비언 청년들의 은밀한 아지트였다. 하지만 1976년, 경찰의 퇴폐음란업소 불시 검문으로 인해 쇠고랑을 찬 여자들의 단체 사진을 남기고 사라진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6년,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바(Bar) '레스보스'가 서울 공덕동에 문을 연다. 자신들만의 장소를 찾아 떠돌던 많은 레즈비언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했고, 이에 힘입어 신촌으로 확장한 '레스보스'는 이후 수십의 레즈비언 장소가 탄생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 당시 10대 레즈비언들은 '신촌공원' 무대에 올랐다. 그들은 남자 아이들의 춤을 따라 하며 장우혁이 되기도 하고 에릭이 되기도 하면서 성별을 뛰어넘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곤 했다.

'레스보스'의 3대 사장인 윤김명우(65세)는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으로, 70년대 명동 커뮤니티를 "숨통을 틔워준 유일한 장소"로 기억한다. 그는 지금도 레즈비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2009년에 닫았던 '레스보스'를 2019년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다시 연다. '신촌공원'에 머물며 청소년기를 보냈던 유진(30세)은 2000년대의 '신촌공원'을 "믿기지 않는 꿈의 장소"로 기억한다. 그는 퀴어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춤출 수 있도록 케이팝 댄스 공간 '루뎐'을 서울 망원동에 연다.

한국 레즈비언 공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두 사람, 윤김명우와 유진.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퀴어공간 '레스보스'와 '루뎐'. 이곳은 2020년을 사는 퀴어들에게 홈그라운드가 될 수 있을까?

기획의도

2018년에 단편 다큐멘터리 <퀴어의 방>을 만들며 많은 방을 드나들었다. 누군가에게는 거실에 임시로 놓인 텐트가, 또 다른 이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지 못한 월세방이 삶의 뿌리였다. 성소수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마지막 선인 '방' 이야기들을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의 공간을 상상하게 되었다. 언제까지 방 안에만 머물 수는 없었고, 당연히지만 방 바깥에도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레즈비언 퀴어 공간에 대한 남아있는 계보를 찾고,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각 장소들의 문을 열고, 하나로 정리할 수 없는 사정들이 문을 닫게 한다. 열리고, 또 닫히며 쓰여온 많은 이야기들은 단단하게만 보였던 도시의 옆구리에 구멍을 낸다. 이 작은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기억들을 모으고, 이를 통해 도시를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감독

권아람
speakkoutlouder@gmail.com

퀴어의 방 | 연출 | 2018
463 Poem of the lost | 연출 | 2018
2명의 증명 | 공동연출 | 2013

흑청춘의 세계일주 People of Earth

한국 | 한국어, 스와힐리어, 암하라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 90min | MOV
사회&인류, 여행기



흙수저 청춘이 지구 한 바퀴를 여행하며 만나는 세계의 사람들

목표

목표 프로듀서 영입, 공동 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배급사 계약,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7.09 - 2018.04
제작	2018.05 - 2020.08
후반작업	2020.09 - 2020.12
제작완료	2020.12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13,000,000
-------	-------------

시놉시스

‘여행을 길게 한 사람은 세계와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데, 소심하고 이기적인 나도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교실 벽에 붙은 세계지도를 보며 여행을 꿈꿨다. ‘지구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 미루고 미루던 여행. 지옥고(고시원, 반지하, 옥탑방)에 살면서 근근이 모은 돈으로 마침내 길을 나섰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라비아, 아프리카. 827일, 43개국, 109,980km, 지구 두 바퀴 반 거리, 하루 예산 18,400원. 여비를 아끼려고 온갖 곳에 텐트를 쳤고, 한비아와 체게바라의 모험을 상상하며 관광지 보다는 오지로 향했다. 나는 여행의 초점을 ‘사람’에 맞추고 길 위에서 만난 280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건넸다. 행복과 슬픔, 꿈과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르지만 또 어딘가 닮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계는 아름다웠지만 아픔이 가득했다. 세계 곳곳의 아픔은 더이상 타인의 아픔만은 아니었다. 대상포진에 걸리고, 빈대에 시달리며, 폭력 경찰을 만나고, 강도에게 모든 걸 털리고도 계속된 좌충우돌 로드무비. 세계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기획의도

‘인간과 문화는 고립되면 소멸하지만, 타인들과의 만남, 다른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타인 속에서 인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들 자신의 인간성도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 카를로스 푸엔테스 <흙청춘의 세계일주>는 한 가난한 여행자가 만난 세계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여행은 낯선 세계에 대한 환상과 동경, 고정관념과 공포를 깨는 과정이었다. 분쟁 중인 니카라과와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로질렀고, 베네수엘라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함께 국경을 넘었다. 술한 소매치기와 사기, 인종차별과 폭력, 목숨이 오가는 강도까지 당했지만, 그래도 세계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경험했다. 술한 사람들의 친절 덕분에 나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살던 한국 사회와는 다른 문화와 가치들을 만났고, 좀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다. 영화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에도 끝내 이어지는 인간성과 공존의 희망을 전하고 싶다.



감독

유최늘샘
veritasaem@hanmail.net

통영가족의 시베리아 횡단기 | 연출 | 2017

2017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늘샘천축국던 | 연출 | 2014

2015 부산평화영화제 - 드넓은푸른공감상

2014 인디다큐페스티벌

32.5 공수, 건설노동자의 날품 | 연출 | 2012

남한기행 - 삶의 사람들 | 연출 | 2011

201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미륵동 서커스 | 연출 | 2010

2010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 한국실험영화상

노(能), 나와 나의 어머니 My Mother is a Noh Actor

홍콩 | 일본어 | 75min | DCP
예술&문화, 사적&관점, 사회&인류



노 (일본 전통 연극 형태의 하나) 배우로서, 또 무형문화재의 유일한 계승자로서, 40세의 히카루는 아이를 낳아 예술과 가족의 혈통을 지탱하거나, 혹은 어머니가 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예술을 이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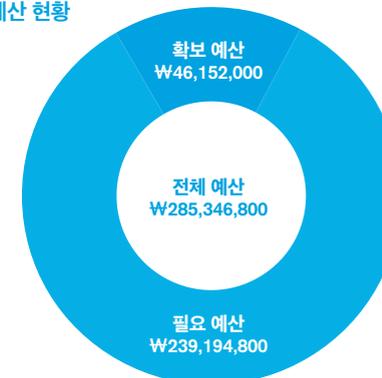
목표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7.01 - 2017.11
제작	2017.12 - 2021.09
후반작업	2021.06 - 2022.03
제작완료	2022.03

예산 현황



확보 예산

C. C. Wu Cultural & Education Foundation Fund	₩46,152,000
---	-------------

시놉시스

<노(能), 나와 나의 어머니>는 650년 역사를 지닌 일본 전통 연극인 노(能) 배우의 이야기를 다룬다. 남성 중심의 노(能) 제국에서, 여성 배우 히카루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기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사생활과 커리어 모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히카루의 어머니 히사, 그리고 히카루가 노를 연기하는 것은 결코 노 연극 장인이자 히카루의 할아버지인 우자와 마사시의 계획이 아니었다. 히사와 히카루는 오늘날 일본에서 '시테'로 불리는 몇 안 되는 노 연극 여성 주연배우이자 유일한 모녀 배우이다. 선구자로서 히사는 일본 정부에게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히카루 역시 3살 때 무대에 데뷔한 이후, 노를 널리 알렸으며, 해외에서 공연도 했다. 하지만 히카루와 히사는 끊임없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남성 위주의 분야에서 싸워야만 한다.

히카루는 어머니처럼 30세에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도 않았다. 그녀를 보러 오는 관객들은 좀 더 혁신적인 예술을 찾고 있다. 히카루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 자신의 극단을 설립하여 경력을 쌓을 계획이다. 그녀 나이대의 많은 여성들처럼, 그녀는 남편 측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우자와 가문의 노 연극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기대에 출산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40세에 임신을 하는 것이 향후 커리어 계획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 '시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면서도, 히카루는 어머니, 딸, 아내로서 일본 사회 속 여성의 역할 안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기획의도

최근 내가 무척이나 관심이 가지는 것은 전통 공연 예술이다. 아시아에는 유네스코 등재 무형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있지만, 모두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본인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그 먼 거리를 단축시키고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되길 바란다. 이 영화는 아시아 전통 공연 예술가에 대한 세 번째 작품인데, 앞의 두 작품은 홍콩과 중국의 오페라 예술가에 초점을 맞췄다. 세 번째 프로젝트를 위해서 홍콩과 중국과는 또 다른,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다.

'노'는 유네스코에 가장 초창기에 등재된 무형 문화재 중 하나이다. 이 영화는 히카루의 경험을 통해 젊은 여성 노 배우들이 겪는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그들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남성 위주의 노 세계에 대응하는 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들이 전통, 예술, 꿈, 삶, 그리고 자아를 이해하는 방식을 이야기해본다.

나는 2012년에 히카루를 처음 만났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히카루가 나의 연극 프로젝트에서 직접 공연했다. 히카루의 연극과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 무대 위 여성 노 배우들의 작업에 대한 엄마 히사와의 대화, 무대 밖 딸, 아내, 엄마로의 역할 등에 대해, 연극적 요소들이 어떻게 영화에서 보일지 탐구하고자 한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 젠더에 따른 커리어 경력,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주인공들의 경험을 조금 더 이해해 보길 바란다.

트리트먼트

영화는 히카루의 실제 생활을 친밀하게 바라볼 뿐 아니라, 노 극장 공연도 담아내며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이런 장면들을 서로 엮어내면서, 감독은 히카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무대 위의 노 배우들과 무대 밖에서 딸, 엄마, 아내의 삶에 대한 히사와의 대화를 담는다.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가 진행될 때, 극장의 요소들이 영화에서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노 연극에서 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는 순수하며 관조적이다. 연극 부분 장면에서는 시들이 들려주는 역사적 대사와 철학적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예술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객들이 충분한 이해와 함께 노 연극이라는 예술 형식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제 노 연극의 대사들을 등장인물들의 실제 이야기와 연관 지어 들려주기도 할 것이다.

노 연극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고작 몇 편뿐인데, 이 오래된 예술 형식을 보여주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연극배우들을 다루는 내용은 드물다. 카메라는 히카루와 히사를 매우 가깝게 따라갈 뿐만 아니라, 가면을 착용하기 전의 의상 준비 모습과, 준비 기도하는 모습, 연극을 하기 전 여러 연습 과정을 렌즈를 통해서 해부학처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요소들은 히카루의 조언에 따라 아름답게 또 세세하게 보일 것이다.

이 영화에서 음악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감독은 2018년 히카루와 작곡가 널브(Nerve)와 함께 크로스 컬처 및

크로스 장르 실험의 하나로 하이브리드 공연을 공동 연출했었다. 연극을 연출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에 반응하는 전통 공연 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 그들이 계승하고 대표해 온 예술 형식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어떻게 그들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었다. 그때의 경험이 이번 영화 프로젝트에도 반영되어 있다.

제작사

A Priori Image

2012년 설립된 아 프라이어리 이미지 A Priori Image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주력하며 다양한 미디어의 창의적 인재들과 함께 한다. 우리는 창의성이 "선형적/초월적(Priori)"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경계도 없고 관습도 없다.

수많은 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피시 스토리>와 제8회 시닝 퍼스트 국제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제23회 홍콩영화평론가협회 작품상을 수상한 <Snuggle>을 제작했다. 최근 제작한 <대나무로 엮은 극장>은 56회 금마장 다큐멘터리상, 제39회 홍콩 금상장 신인감독상 후보, 2019년 홍콩영화감독조합 특별인급상, 제26회 홍콩영화평론가협회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감독&프로듀서

척 청
cheukcheung@a-priori-image.com

대나무로 엮은 극장 Bamboo Theatre | 연출 | 2019

201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9 제26회 홍콩영화평론가협회 - 최우수작품상

Snuggle | 제작 | 2016

2016 제23회 홍콩영화평론가협회 - 최우수작품상

일개무생 My Next Step | 연출, 제작 | 2015

피시 스토리 Fish Story | 공동제작 | 2013

건단로 My Way | 연출, 제작 | 2012



프로듀서

켄 후이
ken@picapicamedia.com

Snuggle | 제작 | 2016

2016 제23회 홍콩영화평론가협회 - 최우수작품상

크리스토퍼 도일의 홍콩삼부작 Hong Kong Trilogy | 제작 | 2015

2015 토론토국제영화제

피시 스토리 Fish Story | 공동제작 | 2013

Bends | 제작 | 2013

2013 칸영화제

건단로 | 공동제작 | 2012



반신(半神)과 집단 광기 사이에 낀, 선전 영상, 초현실주의 콜라주, 팝아트 애니메이션의 세계에서 레이 가족은 5-60년대 중국의 격동적인 움직임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목표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선판매

예산 현황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3.03 - 2017.07
제작	2017.08 - 2020.10
후반작업	2020.11 - 2021.04
제작완료	2021.05

확보 예산

C-Ray Studio Hubert Bals Fund Chinese Shadows Wouter Barendrecht Award	₩804,000,000
---	--------------

시놉시스

마오마오는 병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강제로 시골에서 일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고생했던 1960년대 중국을 떠올린다. 아버지는 이 나라의 제도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고 그렇게 세 명의 아이들은 고아원에 가게 된다. 새장에 갇힌 채, 마오마오와 두 자매는 새가 된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커다란 쇠와 철을 태우고 있다. 용강(龍江)을 분노케 하는 거대한 공사가 시작된다. 그때 잉어가 나타나 여자로 변하여 아이들이 인간의 모습을 되찾도록 도와주고 가정에 정착할 수 있게 하며, 아이들의 양어머니가 된다. 아버지가 마침내 돌아오자, 새로운 가족에게 화합과 행복이 피어난다. 하지만, 곧 문화대혁명이 발발하고 집이 날아가 버린다. 자매들은 다른 곳으로 떠밀려진다. 아버지와 아이들이 다시 헤어진다. 들판에서는 사람들이 깃발을 불태워 곤충으로 만드는 집단 트랜스가 벌어지고, 거대한 과일과 채소가 세계를 침략한다. 하늘에서 구름의 신들은 이 혼돈을 관찰한다. 마오마오와 그의 새어머니는 시골로 보내져 그곳에서 적응하려 노력하고, 다른 마을에서 아버지는 그의 정치적 과거를 고백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그들은 재회할 날을 기다린다.

기획의도

2013년, 아버지가 쓰신 구술사 「가족의 변화」라는 글을 읽고 가족 구성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역사교육이 부족한 우리 세대의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가족의 과거를 탐구하며 정체성을 찾았다.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모든 사람이 같은 시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기억을 읽음으로써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닝두>에서는 모든 캐릭터, 산, 강이 점토 모델링으로 만들어진다. 이미지의 질감과 색상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살아 숨쉬고 있다. 만약 영화가 꿈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애니메이션 언어의 가장 큰 매력은 '꿈을 꿈속에서 꾸는 것'이다. 이번 영화에서도 첫 장편 <숨 가쁜 동물들> (2019)에서 사용한 스타일 구성을 계속해서 쓸 것이다. 「인민화보 China Pictorial」 잡지사 같은 아카이브와 오래된 흑백 가족사진을 콜라주 형식으로 조합할 것이다. <닝두>가 나에게서 용기 있는 발걸음이자,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을 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트리트먼트

마오마오는 부모님과 그의 누이들, 그리고 자신이 하루하루를 투쟁 하듯 살아야 했던 중국의 사회정치적 혼란기 속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시간들을 떠올린다. 판타지와 역사적 현실 사이, 현대적인 초현실주의 팝아트와 공산주의 프로파간다 이미지들, 중국 신화 속 이미지들이 뒤섞인 세계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아버지는 정부 관료의 지시에 따라, 병든 아내와 세 아이를 '닝두'라는 마을에 두고 시골의 농부들을 도우러 떠난다.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는 장례식을 위해 집으로 달려오지만, 그가 아이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은 오직 3일뿐이다. 그는 세 아이를 고아원에 남겨둔다.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갇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새장에 갇힌 새들이 된다.

그들 주변, 전국 각지에서는 사람들이 쇠와 고철을 녹이고 있다. 다리, 댐, 도로를 건설하는 대형 공사도 시작되어 자연을 파괴시키고, 용강을 화나게 한다.

시간은 흐른다. 잉어 한 마리가 따뜻하고, 헌신적인 여성으로 변신해 나타난다. 그는 아이들이 새장을 떠나, 인간으로 돌아와서 그들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양어머니가 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다. 가족은 이제 정말로 정착하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여름에는 온 가족이 야외로 영화를 보러 간다. 가족들과는 조금 떨어진 채 작은 마오마오는 큰 스크린 속 손오공에게 놀라워하며 군중 속에 홀로 서 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항상 짧다. 새로운 정치 운동의 물결이 도래하여 다시 가족들과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

집이 폭파되었다. 아버지는 패배한 국민당의 은행에서 일했던 정치적 과거 때문에 어느 가게에 갇힌 자백을 강요당한다. 두 자매는 다시 새처럼 날개가 돌아 멀리 날아가라고 떠밀려진다. 마오마오와 새어머니는 '구'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로 보내진다. 다시 한 번 가족이 갈라진다.

들판에서는 사람들이 깃발을 불태우며 작은 곤충들의 물결로 변신하는 집단 트랜스를 선보인다. 거대한 채소와 과일들이 세계를 침략하고, 구름 위에서 신들은 이 혼돈을 관찰한다.

마오마오와 새어머니는 조금씩 마을 생활에 적응한다. 낮 동안 새어머니는 농장 일을 배운다. 저녁에는 12세인

마오마오가 농부들에게 민중가요인 인터내셔널가를 읽고 쓰고 노래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어느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오마오는 강물에 우연히 빠진다. 어느 날은 새어머니가 길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진다.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시간들을 지나 천신만고 끝에 가족은 재회한다. 10대인 마오마오는 2천 원어치 고기를 사기 위해 자전거를 신나게 타며 정육점으로 향하지만, 이내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아이들은 성장하지만, 부모는 늙는다. 함께 모여 옛 사진들을 보며 과거를 회상한다. 닝두 옛집에서의 추억은 꿈만 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들이 있다.

제작사

CHINESE SHADOWS

홍콩에 본사를 둔 제작사 차이니스 섀도우 Chinese Shadows 는 젊은 아시아 감독들의 작품을 제작하여 세계에 선보인다. 2008년 창간 이래, 왕 사오슈아이, 로우 예, 루 추안, 리 위 등, 가장 재능 있는 중국 감독들의 작품을 제작해왔다. 현재 라인업에는 다큐멘터리 거장 왕 Bing, 아티스트 레이 레이, 인도네시아 감독 에디 카요노의 작품들이 있다.



감독

레이 레이
milk527@gmail.com

- 화창한 여름날의 일기 A Bright Summer Diary | 연출 | 2020
2020 로테르담국제영화제
- 숨 가쁜 동물들 Breathless Animals | 연출 | 2019
2019 베를린국제영화제
- 핸드 컬러 No.2 Hand Colored No. 2 | 연출 | 2017
재활용된 Recycled | 연출 | 2013
2019 네덜란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 그랑프리
- 디스 이즈 러브 This is Love | 연출 | 2010
2010 오타와국제영화제 - 최우수 단편상



프로듀서

이자벨 글라상
chineseshadows@gmail.com

- 중국의 자화상 Chinese Portrait | 제작 | 2018
- 살인자 말리나의 4막극 Marlina, the Murderer in Four Acts | 공동제작 | 2017
2017 칸영화제
- 틈입자 Red Amnesia | 제작 | 2014
2014 베니스국제영화제
- 열한송이 꽃 11 Flowers | 제작 | 2011
- 청홍 Shanghai Dreams | 총괄 제작 | 2006
2006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델리로 가는 여정 Prabha

인도 | 인도어 | 75min | DCP
사회&인류, 여성역량강화, 영웅의 여정, 고령화사회



83세의 프라바와 85년 된 '사쿠니 (1934년식 빈티지 카 오스틴 세븐)'의 육십 년 동안 이어진 남다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

목표

제작비 마련, 투자 유치, 세일즈사&배급사 미팅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8.05 - 2019.06
제작	2019.07 - 2021.01
후반작업	2021.02 - 2021.05
제작완료	2021.07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36,000,000
클라우드 펀딩	₩24,000,000

시놉시스

이 영화는 나이와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과 편견을 거부하는 프라바의 작고 멋진 세계를 보여준다.

프라바는 1937년 매우 보수적인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6남매 중 한 명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결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녀는 완강한 가족의 의견을 거부하며 21살에 집을 떠나 혼자만의 길을 가기로 한다. 그 당시로는 유례없는 반란이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세 가지 독특한 일들을 했고, 자동차 경주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위험하고 경쟁적인 자동차 경주에 여성 참가자가 참가 신청을 한데 거부감을 느낀 주최 측이 지원서를 도로 가져가라고 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녀의 차 '사쿠니'는 단순한 차 이상으로 그녀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 사쿠니는 감정적인 공백을 채워주고, 삶의 목적, 정체성, 안전, 소속감을 주었다. 그들은 64년 동안 수많은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며 사람들의 응원과 상을 받았다. 계절에 상관없이 수천 킬로미터를 낮이며 밤이며 함께 누비는 파트너였다. 자동차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그녀의 사회봉사 정신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교통 안내 자원봉사를 하며, 푸네 시에 있는 분주한 교차로, 학교, 그리고 지역 운동장의 교통상황을 관리했다. 그녀는 지역 유명 인사가 되었고,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녀 연배의 사람들과는 달리 활동적이고 민첩하며 유달리 추진력이 강한 그녀는 유일무이한 캐릭터로 지역에서 중요하고, 의미미하며, 더욱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자리 잡았다.

프라바는 오래된 트로피와 자동차 기념품과 부품으로 가득한, 그녀만의 박물관이 된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2년 전 한 정비공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프라바와 사쿠니의 모험은 갑자기 중단되었지만, 그녀는 사쿠니를 되살려 델리에서 열리는 가장 큰 빈티지 자동차 경주 대회 인도 21건 살루트 랠리(India 21 Gun Salute Rally)에 참가하려고 한다. 자동차 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사쿠니를 오히려 다시 살리기 어렵게 만들었고, 사쿠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된다. 프라바는 사랑하는 사쿠니를 도로로 돌려놓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 여정을 떠나려고 하던 와중,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모든 것을 멈춰버린다. 몇 십 년만에 처음으로 프라바는 집에 갇혀 기존의 일상을 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쓸모 없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다 사쿠니도 되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갑작스러운 충격은 프라바와 사쿠니의 여정을 더욱 은유적으로 만들었다. 프라바와 사쿠니는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목적을 잃고 불필요한 존재로 변해가는 것에 맞서 싸우려는 시도가 된다. 이 영화는 60년 동안 함께했던 차에 사랑과 열정을 바치고, 놀라운 독립심과 선택으로 삶을 일궈낸 한 여성의 인생과 난국을 다룬다.

기획의도

프라바와 나는 3년 전에 우연히 만나, 바로 친구가 되었다. 프라바는 내가 다닌 영화학교 호스텔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산다. 나는 지역 NGO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녀를 만났다. 그녀의 개방성과 따뜻함이 나를 끌어당겼고, 그녀의 인생 이야기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었다. 그녀가 초대받은 지역 행사에 동행으로 함께 가기도 했고,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전담 영상 촬영기사이자 그녀의 사생활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존재였다.

다니던 영화 학교가 파업과 학사 중단 등을 겪을 때, 나는 프라바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다. 프라바와 함께 드라이브도 하고 근처 디저트 가게에 가기도 했다. 그녀와 나는 마치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되었고, 그녀의 삶에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었다.

나 또한 프라바와 마찬가지로 가족과는 다른 길을 걸었는데, 이 점 또한 끌렸다. 나는 내 가족에서 대학을 나온 첫 번째 여성이고, 친척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회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열정을 추구한 사람이다.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하려는 의욕과 새로운 것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으로 삶을 대한다.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지만, 또 이야기꾼으로서 프라바는 엄청난 나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녀의 인생은 엄청나게 풍부하고, 다면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존재의 의미를 다루는 큰 울림이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두 여자가 사쿠니를 고치려고 애쓰는 동시에 영화를 만드는 것이 되었다.

트리트먼트

이 영화의 대부분은 직접 인터뷰나 직접적인 화자 없이 플라이 온 더 월(fly-on-the-wall) 관찰자 시점으로 촬영된다. 모든 역경을 무릅쓰고 차를 고치는 프라바의 여정이 서술의 중심이고, 그 실패와 성공이 영화의 감정을 잡아 준다. 영화

는 프라바의 두 세계—수백명의 행인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난히 활동적인 프라바의 바쁘고 역동적인 '대외 세계', 그리고 소소한 일상 활동과 꼼꼼한 기록이 마치 급격하게 멀어지는 세계를 따라잡기 위한 신성한 의식과도 같은 그녀의 멋지면서 동시에 외로운 '내면의 세계'를 따라간다. 그녀의 오래된 인터뷰, 사진, 비디오를 함께 사용할 예정인데, 이는 과거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보여줄 것이다. 젊은 시절에 대해 아주 작은 것들도 기억해내는 그녀의 주변인들과 친밀한 대화, 특히 미용사와의 상호작용은 그녀의 삶에 대한 멋진 기억들을 끄집어 내준다. 그녀의 대화 참가 시절 당시 라디오 중계는 그녀의 과거 모습을 형성할 것이다. 프라바의 현재와 매혹적인 역사와 추억이 교차하는 것은 그녀의 삶의 목표, 즉 수동적이고 불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준다. 사쿠니는 프라바만큼 중요한 주인공으로, 사쿠니와 프라바 사이에는 인생의 평행선이 그려진다. 일상음을 배경으로 많이 쓸 것이며, 프라바의 집이 비교적 조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동차 작업장의 쇠소리와 도로의 소음이 그녀가 살고 있는 두 세계의 대조적인 리듬을 들려줄 것이다. 프라바는 잘 자기 위해 오래된 인도 서부의 마라티 노래들을 듣는데, 이 노래들은 영화에서 규칙적인 모티브가 된다. 프라바는 매우 유명한 힌디 노래 "Mere Sapno ki Rani"(내가 꿈꾸는 그녀)에 사쿠니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담아 부르는데, 이 노래 역시 규칙적인 모티브로 프라바의 델리 여행의 사운드트랙 역할을 할 것이다.

제작사

Bricolage Collective Films

브리콜라지 컬렉티브 필름스 Bricolage Collective Films 는 협업을 통한 독립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고자 설립됐다. 픽션과 논픽션 모두 제작하며, <델리로 가는 여정>은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다.



감독&프로듀서

비니타 네기
bricolagecollectivefilms@gmail.com

Free Electrons | 연출, 촬영, 제작 | 2021

CatDog | 편집 | 2020

Rendezvous Underground | 연출, 촬영 | 2019

Riverbanks | 편집 | 2016

두 번째 고향 Our Second Home

홍콩, 대만 | 광둥어, 중국어 | 90min | DCP
생활, 사적&관점, 사회&인류, 정치



홍콩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과 거리가 먼 작고 평온한 어촌 마을에 외부 세계가 들어오며 일상은 충격을 받는다. 거리 시위와 정치적 견해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갈라놓을 때, 공동체를 함께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목표

투자 유치,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9.07 - 2019.10
제작	2019.11 - 2021.04
후반작업	2021.04 - 2022.02
제작완료	2022.02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36,000,000
-------	-------------

시놉시스

홍콩의 외딴섬들 중 하나인 청차우의 어촌은 멀리 떨어진 채로 도시의 경제적 기적을 경험했다. 외지인의 눈에는 이 마을이 구태의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들에게 청차우는 홍콩 도시의 경제적 흥망성쇠를 통해 심오한 변화를 겪었다.

해변에 있는, '평화로운 날'이라는 뜻의 아우타이 노점은 이곳 생활을 조금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어쩌면 이곳은 홍콩의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축소판이다. 2019년 초 홍콩 정부가 발의한 범죄인 인도법은 주민들 사이에 거대한 항의를 일으켰고, 홍콩의 평온한 축소판인 이 식당도 흔들렸다. 청차우로 오는 여행객이 점점 줄어들고, 사업도 큰 영향을 받는다. 헤비 뷰티와 같은 젊은 고객들은 시위를 지지하고, 사장 아정과 같은 기성세대들은 경찰과 정부 편을 든다. 이런 세대 차이, 뒤이은 불협화음이 세대 간 썩기를 박기 시작해 아우타이의 우호적 분위기가 위협받기 시작한다. 평화로운 날은 그저 환상이었을까?

기획의도

나는 식당 아우타이 내부와 주변의 삶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 나와 함께 여행을 하듯 우리 주변의 세계가 어떻게 사회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 목격하기를 바란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주목하게 된다.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고, 가족의 경계가 재정립되는 미시적인 공간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때로는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는 감정들을 탐구하고 싶었다. 물리적 공간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인간관계들이 그 공간 뒤와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이러한 관계들은 잠시 그 공간에만 존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을 운명인가?

트리트먼트

홍콩의 외딴섬들 중 한 곳, 어촌 섬 청차우는 도시의 경제적 기적을 아주 멀리서만 경험해 왔으나, 조용한 은신처에서 여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등장으로 삶은 크게 달라졌다. 청차우 항구의 해안가에 있는 '평화로운 날'이라는 뜻의 아우타이 식당은 마을의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축소판이며, 일종의 도시국가에서의 삶을 조금 황당하게 보여주는 연극 같기도 하다.

이 작은 음식 노점은 사실 식사 메뉴가 별로 없다. 대부분의 매출은 음료와 맥주 판매에서 비롯되고, 마른 해산물과 같은 손쉬운 간식거리가 있다. 이 협소한 메뉴는 시대적 신호이다. 중국인 신규 관광객들은 가벼운 간식거리만 찾고, 옛 손님들은 술을 마시러만 온다. 주인인 아정은 홍콩의 어느 가게 사장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나날을 손님들과 마작이나 포커를 하며 보내고, 노점의 작은 TV 화면에서 경마를 본다. 누군가 그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여가를 보낼 방법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다. 아정의 과장된 미소와 무관심한 표정은 지나치는 방문객들의 눈에는 확실히 범상치 않게 보인다.

오랜 단골손님 헤비 뷰티는 아정보다 40살이나 어리지만 10년 넘게 친구들과 함께 아우타이를 들리고 있다. '이곳은 우리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다. 다른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추억과 이 작은 마을의 문화를 모으는 것이다. 혈연관계는 없지만 소속감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청차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2019년 초 홍콩 정부가 발의한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 주민들 사이에 큰 항의를 일으키고, 아우타이라는 평온한 세상의 축소판도 흔들린다. 청차우에 오는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어 아정의 수입이 줄었을 뿐 아니라 헤비 뷰티와 같은 젊은 고객들이 시위를 지지하고, 아정 등 기성세대는 경찰과 정부를 지원한다. 세대 격차와 연이은 싸움은 '평화로운 날' 아우타이를 둘러싼 사람들을 서로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 낡은 삶의 방식은 현재의 사회적 충돌과 공존할 수 없고, '평화로운 날'의 가족들은 곧 헤어질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아정과 그의 오랜 단골 헤비 뷰티와의 관계는 매우 달라졌다. 그녀처럼, 젊은 고객들도 이제 더 이상 아정의 식당을 방문하려는 의지가 덜해지고, 심지어 다른 곳으로 단골 가게를 옮기기로 결정한다.

2020년 초, 새해를 맞아 헤비 뷰티와 몇몇 친구들은 아정의 가게를 방문한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함께 대동하여 가게를 들린다. 무언가가 미묘하게 변했지만, 아우타이의 이상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여전히 어떤 가족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 이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을 때, 또 다른 위협은 다가온다. 코로나 19의 확산은 모든 사람들을 집 안으로 밀어 넣는다. 청차우에 인적은 끊기고 아정과 손님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평화로운 날'은 그저 가혹한 현실과 충돌해야만 하는 환상이었을까? 어쩌면 이 가게는 홍콩에서 사라질 운명인 단순하고 정직한 삶의 방식 중

에 하나인가?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은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듯, 주변 세계가 우리 사회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봤으면 한다.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고, 가족의 경계가 재정립되는 미시적인 공간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 분열하도록 강요하는 감정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모두가 연결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은 과연 있는가, 아니면 잠시 존재하며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을 운명인가?

제작사

Volos Films

2018년에 설립된 볼로스 필름스 Volos Films 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전념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장르의 떠오르는 신예들의 작품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프랑스 24 Images와 공동 제작하고 허우 샤오시엔 감독이 총괄 제작을 맡은 베를린국제영화제 수상자 후양 후 이천의 새 다큐멘터리 <LOMA-아워 홀>과, 조우 지웨이의 <Tomorrow is a Long Time>, 왕 천홍의 <FAR AWAY EYES> 등이 있다.



감독

프랭키 신
hoyeung_sin@yahoo.com.hk

Le jardin secret des enfants | 연출 | 2016
SHIGAO | 연출 | 2015
SHENTI | 연출 | 2015



프로듀서

스테파노 첸티니
stefano@volosfilms.com

Tomorrow is a Long Time | 제작 | 2020
A Holy Family | 제작 | 2020
LOMA-아워 홀 | 제작 | 2020
무단외출 | 제작 | 2016
2016 부산국제영화제
2016 싱가포르국제영화제 - 관객상, 최우수아세안다큐멘터리상
가정부 니야 | 제작 | 2015
2015 부산국제영화제 - 선재상



레베카 지앙
rj@nineriverfilms.com

The Ring | 연출, 각본 | 2013
2013 상하이국제영화제
Happy Valentine | 연출, 제작 | 2012
2012 홍콩국제영화제



피터 얄
pycyam@gmail.com

The Cube Phantom | 제작 | 2020
2020 로테르담국제영화제
Lost in Fumes | 제작 | 2017
2017 홍콩영화비평가협회 아카데미상
2018 대만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심사위원 특별상
Yellowing | 제작 | 2016
2016 아마다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오가와 신스케상
2016 대만 금마장영화제



솔개와 그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곧 종말이라도 올 듯한 공기와 늘어만 가는 집단 폭력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목표

공동제작 파트너, 투자 유치,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예산 현황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9.02 - 2019.12
제작	2020.01 - 2020.12
후반작업	2021.01 - 2021.07
제작완료	2021.08

확보 예산

자체 확보	₩24,000,000
2020 Catapult Film Fund - Catapult Film Fund	₩24,000,000
2019 IDFA Bertha Fund - IBF Classic Development	₩6,000,000
2019 Sundance Documentary Fund - Development	₩18,000,000

시놉시스

나담과 사우드느 좁고 칙칙한 도로로 가득한 서민층 무슬림 동네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테라스에 누워 솔개에게 먹이를 주는 나이 든 가족들을 구경하곤 했다. 이슬람교도들은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육류 도축의 죄를 씻어준다고 믿는다. 형제가 다친 솔개 한 마리를 발견하여 치료해달라고 동물 병원에 데려갔을 때, '채식주의자 새'가 아니란 이유로 치료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10대였던 나담과 사우드느 마침 전모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 다친 새를 치료해 보고자 그들은 근육에 대해 아는 지식을 총 동원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작은 차고 지하에서 15,000마리 이상의 새들을 수술하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종교 다수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정부는 1억 8,200만 인도 무슬림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민법 조항을 도입했다. 광범위한 시위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형제는 새를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 수천 명의 시위에 동참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다.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부인들은 거리시위에 참여하기로 한다. 두 달 동안 거리시위가 있을 후, 상황은 끔찍할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했다. 델리의 폭도들은 이슬람교도들을 포함한 5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다. 형제는 피에 굶주린 폭도들이 몰려올 것을 두려워하여 이웃을 순찰하며 밤을 보낸다. 이와 함께 의문의 부상을 당한 솔개들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솔개 군집지인 델리에 설명할 수 없는 신경 기형과 시력을 잃은 솔개들이 늘어간다.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환경에서의 인간과 솔개의 삶을 보여준다.

기획의도

나의 첫 영화 <델리에서 잠드는 법>은 델리의 노숙자들의 잠자리 문제를 통해 델리를 보여준다. 노숙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잠을 자는지 통제하는 델리의 일명 '수면 마피아'들을 통해 도시의 정치, 철학, 미학을 보여주는 하나의 범주로 수면을 활용했다. 나는 이렇듯 우리의 초점에서 벗어난 어찌 보면 진부한 일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좋아한다. 이 영화를 통해 하늘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 관객들이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 봤으면 좋겠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신기하고 매력적인 존재들이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도시 생태학'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시작되었다. 인도 여러 도시에 걸쳐 도시 생태학을 연구하는 최첨단 프로젝트로, 나는 대기 오염에 의해 촉발된 델리에 사는 야생 동물들의 행동과 진화적인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종교 다수제를 고집하는 우파가 세력을 잡은 도시에 대해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솔개와 인물, 생태와 환경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절박한 사회정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것은 기존의 '자연에 기반한' 프로그래밍도, '동물/야생' 다큐멘터리도 아니다. 새나 주인공 인물들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도시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더 큰 변화를 이야기한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이 도시도 영화의 한 주인공이다.

트리트먼트

영화의 시각적 문법은 주로 관찰과 시네마 베리테 스타일로 진행되고, 몽환적이고 수필적인 장면들로 형제들이 어린 시절 본 솔개에 대한 꿈같은 느낌이 표현된다. 델리 하늘을 뒤덮고 있는 짙은 회색빛 스모그는 최근 아시아 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의 종말론에 가까운 광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매년 10월이면 짙은 스모그가 담요처럼 시내를 덮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촉발한다. 보이지 않는 태양은 옅은 빛의 번질번질한 얼룩으로만 느껴지고, 도시 풍경은 개, 고양이, 인간, 그리고 야생 동물들의 기침과 헉헉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영화 구조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영화 도입부는 형제가 솔개에 매료된 감각적인 추억들에 대해 보여준다. 솔개는 이처럼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대상으로 제시된다. 변화하는 델리의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슬로 모션 영상들이 포함된다. 영화에서 날고 있는 솔개는 인간의 눈으로 본 것처럼 수평선 너머 작은 점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야생 다큐멘터리처럼 자연이나 야생동물을 다가가서 보여 주거나 망원 렌즈를 통해 날고 있는 솔개를 클로즈업 하지 않을 것이다.

영화의 대부분은 사우드와 나담의 빈민가에서의 일상생활, 황폐한 지하실, 그리고 솔개들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보여 줄 것이다. 직접 인터뷰는 사용하지 않는다. 영화의 상당 부분은 정치적 혼란과 임박한 폭력의 위협을 포착하는데 힘 썼다. 정치 분위기가 긴박해지면 카메라는 형제 가족들에 더 가까이 밀착한다. 긴장된 가족 식사, 긴장상태의 대화들, 또 가벼운 순간들, 그리고 가족들이 정치적 상황의 잔향을 느낄 때 등 다양한 순간들을 가까이서 보여줄 것이다. 이 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진 정치적 난투극은 오로지 가족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진다.



감독

쇼네크 센
sen.shaunak@gmail.com

델리에서 잠드는 법 Cities of Sleep | 연출 | 2015
2016 대만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메리트상, 차세대상



프로듀서

아만 만
aman.mann.2808@gmail.com

델리에서 잠드는 법 Cities of Sleep | 공동제작 | 2015
2016 대만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메리트상, 차세대상

침묵의 집 Silent House

이란 | 페르시아어 | 95min | MP4
예술&문화, 전기, 역사, 생활, 사적&관점, 사회 & 인류



<침묵의 집>은 테헤란에 있는 레자 샤 (이란 팔라비 왕조의 왕, 1925~1941간 집권)의 네 번째 부인 소유 고택에 살고 있는 한 전통적인 가족을 통해 혁명 전후의 이란을 탐험하는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이 영화는 두 명의 남매 영화감독의 매우 개인적인 내레이션을 따라 1979년 혁명 이후, 이란 상류층 가족이 겪은 변화를 그려냄으로써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다. 집 자체가 침묵의 증인이 되며,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란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가족의 집은 이란이라는 국가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목표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국제영화제 출품,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3.01 - 2014.02
제작	2014.04 - 2021.01
후반작업	2021.01 - 2021.06
제작완료	2021.07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303,640,800
-------	--------------

시놉시스

<침묵의 집>은 100년 된 특별하고 역사적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3대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꿈과 희망이 쉽게 짓밟히는 사회에서 살기 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나와 내 동생, 우리 두 영화인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진화를 추적한다. 구성원 개인의 일상과 과거, 괴로움과 슬픔, 기쁨과 이상을 깊숙이 따라 들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란처럼 복잡하고 급변하는 가족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동 특유의 정치 상황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관찰한다. 사진, 슈퍼 8미리, 홈 비디오 등의 가족을 기록한 아카이브 푸티지를 통해 우리 가족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인상적인 순간들을 회상하며, 가족 그리고 이란의 역사 속으로 돌아가 그 집의 정신을 기억하며 과거를 환기시킨다.

기획의도

2004년, 영화 공부를 하기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캐나다 사람들이 이란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그때 깨달았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오직 뉴스로 본 것들뿐이었다. 뉴스에서 보는 것과 현실 속 이란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이슬람 혁명, 분쟁, 정치적 압박, 파업들은 외부인들에게는 뉴스의 헤드라인일 뿐이지만 이란 국민들은 그러한 사건들과 함께 살아간다. 모두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2011년, 나는 내 어린 시절 살던 집에 대한 졸업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나와 동생은 우리 가족을 촬영하고 있다. 이 영화는 이 가정의 3대째 여성인 내가 직접 내레이션 한 매우 개인적인 영화다. 잃어버린 희망, 극적인 운명, 고통,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 침해는 우리 가족, 내 동생, 그리고 내가 여러 해에 걸쳐 목격한 것이다. 하지만 조용한 이 집처럼 우리들도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는 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고,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에 속한다. 우리 세대는 혁명의 결과, 전쟁, 경제 위기, 정치적 압박 등 다양한 난투를 경험했다. 우리는 결코 시대에 무관심한 세대가 아니다.

트리트먼트

안개가 낀 날, 엄청나게 오래된 저택 하나가 나타나며 영화는 시작된다. 넓은 정원을 지나면 독특하게 생긴 건축물이 보인다. 나의 내레이션에서는 몽환적인 슬픔이 느껴진다. 이 집에 사는 우리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낡은 거실 선반 위에 있는 액자 속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1층에 사는 86세 할머니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간다. 그녀는 반평생을 이 집에서 보냈다. 제국의 붕괴부터 이슬람 혁명, 전쟁, 자녀와 손주들의 이민 등 너무나 많은 것을 목격했다. TV에서는 여자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66세 삼촌 모하마드는 잠에서 덜 깬 듯 침대에 앉아 있다. 우리는 슈퍼8미리 카메라로 기록된 샤(이란 왕)가 떠난 날의 영상을 본다. 테헤란 북쪽의 우리 집 근처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장면은 매우 독특하다. 어머니가 카메라 뒤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다. 내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이야기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혁명 노래를 가르쳐주고 거리에 서 많은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는 어떠한 혁명에도 반대하면서도 어머니가 하신 일에 대해서는 불평한 적이 없었다. 세 살 소녀인 내가 혁명의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검은 차도르를 입은 시위대, 성난 여성들의 모습 위로 내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정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온다. 우리집에 놀러온 미국에 사는 사촌동생들의 자녀들이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오는 다음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본다. 이들이 다음 이야기를 해줄까?

제작사

Eli Image

일라이 이미지 Eli Image 는 이란 가장 최신의 다큐멘터리와 장편 영화를 선보이는 독립 영화 제작 및 배급 회사로, 젊은 이란 영화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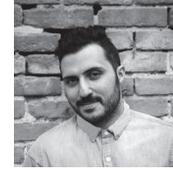
파르나즈 주랍시안 & 모하마드레자 주랍시안
farnaz.jr@gmail.com & jourabchian.m@gmail.com

Life: A Reza Lavassani's papier-mâché Installation | 연출 | 2019
Overruled | 연출 | 2016

2016 캐나다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Final Encore | 연출 | 2013

The Last Image of a Memory | 연출 | 2012



프로듀서

엘라헤 노바크트
nobakht.e@gmail.com

비러브드 Beloved | 제작 | 2018

2019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2019 캐나다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관객상

2018 IDFA 중편경쟁 - 관객상

It's a Dream | 총괄 제작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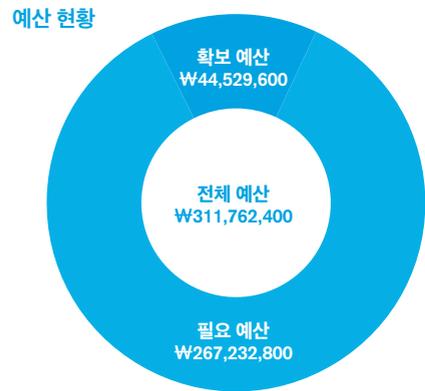
카메이 Kamay

아프가니스탄 | 페르시아어, 영어 | 90min | DCP
 예술&문화, 젠더, 사적&관점, 사회&인류, 전쟁&분쟁, 청소년&어린이



아프가니스탄 중부 산악지대 출신의 한 소녀가 카불대학교 내에서 자살한 후,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던 그녀의 가족들은 고통스럽고 지치는 일련의 사건을 겪게 된다. 그녀의 부모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사법제도 중 하나에 맞서 정의를 찾고 있는 반면, 동생 프레쉬타는 언니가 다닌 대학에 입학하여 언니가 시작했지만 끝마치지 못한 일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목표	제작 계획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table border="1"> <tr> <td>기획/개발</td> <td>2017.11 - 2018.07</td> </tr> <tr> <td>제작</td> <td>2018.08 - 현재</td> </tr> <tr> <td>후반작업</td> <td>2021.08 - 2021.11</td> </tr> <tr> <td>제작완료</td> <td>2021.12</td> </tr> </table>	기획/개발	2017.11 - 2018.07	제작	2018.08 - 현재	후반작업	2021.08 - 2021.11	제작완료	2021.12
기획/개발	2017.11 - 2018.07								
제작	2018.08 - 현재								
후반작업	2021.08 - 2021.11								
제작완료	2021.12								



확보 예산	
IDFA Bertha Fund	₩22,939,200
크라우드 펀딩	₩21,590,400

시놉시스

다이쿤디 지방의 한 시골 가정 출신의 어린 소녀 자흐라 카와리는 카불대학교에서 수의학 학위를 공부하던 중, 지도 교수의 압박과 논문 심사 불합격으로 인해 학생 기숙사에서 의문을 남긴 채 자살한다. 자흐라의 여동생인 프레쉬타는 언니가 시작한 것을 끝내기 위해 언니와 같은 대학에 입학하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의 거센 반대를 마주하게 된다. 부모인 하와와 유네스는 행여 자흐라와 같은 운명을 겪을까 봐, 그리고 카불의 불안한 치안 상황 때문에 프레쉬타가 카불대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 프레쉬타는 자흐라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도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편, 2년 동안 사법제도 내에서 자흐라의 사건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하와와 유네스는 별 소득 없이 다이쿤디 지역과 카불을 오가기만 한다. 이 구간은 일명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리는 24시간짜리 구간으로 탈레반 테러 집단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여러 곳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기획의도

우리는 현실조차도 무효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 속에 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종군기자들의 기사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기획이 허락한다면, 적어도 한 번 짚은 이런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야기와 차별화되는 것은, 자살을 통해 격렬하게 항의하는 자흐라의 사건을 극도의 객관성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가족들의 반응은 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프레쉬타는 자흐라가 가고자 한 길을 계속 이어나가 고 그녀가 완성하지 못한 일들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건 조사에 대한 부모의 강한 헌신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다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카불로 공부하러 왔지만 같은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다른 소녀들을 응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흐라의 가족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의를 찾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적인 언어로 담아내는 것이 이 영화의 과제이다.

트리트먼트

아프카니스탄 바미안 지방의 어느 추운 겨울 오후, 프레쉬타는 다이쿤디로 가는 차를 기다린다. 카불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언니 자흐라의 흩어진 모습들이 집에 오는 길 내내 머릿속을 휘젓는다. 집에 있는 식구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바쁘다. 프레쉬타는 낫을 들고 다니며, '카메이'라는 약초를 찾는다. 언니의 논문 주제가 이 지역의 약초에 관한 것이었기에, 다시 자흐라가 떠오른다. 도대체 왜 언니의 교수는 연구 주제를 거절했을까? 자흐라의 소지품들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가득하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로 하던 바느질 자수, 프레쉬타가 딴 그 약초, 그리고 남겨진 옷들은 자흐라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가족들은 틈만 나면 자흐라의 자살 이유를 파헤치려 하고, 자흐라의 죽음으로 대학에서는 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연이은 시위는 부패한 제도를 흔들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자흐라를 고통스럽게 한 차별에는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자흐라의 변호사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줄 것을 요청하지만, 학생들은 문제에 휘말려 들까 봐 주저한다. 한편, 언니가 다니던 대학을 가려고 하는 프레쉬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한다. 부모님은 카불과 다이쿤디를 오가는 길목이 너무 불안하고, 학교에서의 인종 차별 때문에,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에 프레쉬타의 결정을 지지하지 못한다. 한밤 중, 프레쉬타는 대학입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자흐라의 자살에 관한 최신 뉴스를 듣는다. 마침내 프레쉬타의 부모는 자흐라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릴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다이쿤디에서 카불까지 24시간의 바람 부는 여정을 떠난다. 부모님이 카불로 가는 동안 프레쉬타의 또다른 언니 아인알하야트는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다. 탈레반 집단이 길 위에서 인질을 납치한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아버지는 수신이 약한 전화로 아직 탈레반이 통치하는 지역을 지나가지 못했다고 알려온다. 부모님은 안전하게 카불에 도착하지만, 카불은 또 다른 혼돈 속에 있다. 탈레반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자흐라의 부모는 지도교수의 무죄를 선언하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쥘다. 아인알하야트는 수십 번 펄펄질 끝에 고작 물 몇 방울을 얻는다. 자흐라의 부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

가족들이 자흐라의 기일에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와서 코란을 읽는다. 집안 공기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들로 가득하다. 프레쉬타와 언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자흐라의 무덤으로 향한다. 프레쉬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만약 내가 자흐라였다면, 나도 언니처럼 자살했을지 모른다고.



감독&프로듀서

샤로크 비카룬
shahrokh.bn@gmail.com

- 카불, 바람에 흔들리는 도시 Kabul, City in the Wind | 사운드 | 2018
- The Mannequin | 음악, 사운드 믹싱 | 2018
- The Bird was not a bird | 음악, 사운드 믹싱 | 2015
- Half | 음악, 사운드 믹싱 | 2015



일리야스 유리쉬
ilyasyourish@gmail.com

- 카불, 바람에 흔들리는 도시 Kabul, City in the Wind | 로케이션 매니저 | 2018
- The Other Side of the Coin | 제작 | 2017
- The Difficult Battle | 제작 | 2016

혁명의 연대기

Chronicle of a Year

카자흐스탄 | 러시아어, 카자흐어 | 75min | DCP, MP4
예술&문화, 사적&관점, 사회&인류



젊은 올림픽 챔피언이 살해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도시 중심부에서 이 살인 사건에 대응하여 시민운동이 일고 있다. 전체주의가 지배했던 과거, 독재주의의 현재로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 강한 젊은 목소리가 관성의 얇은 공기를 깨기 시작한다. 시민사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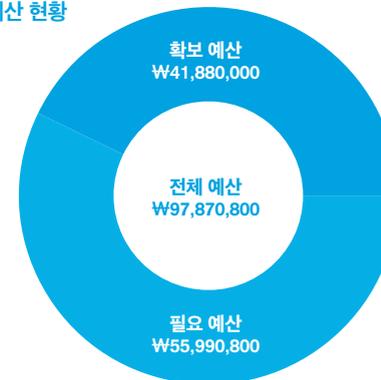
목표

공동제작 파트너,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8.06 - 2018.08
제작	2018.07 - 2020.08
후반작업	2020.09 - 2021.01
제작완료	2021.02

예산 현황



확보 예산

2019 Best Pitching at Baltic Pitching Forum - Current Time TV Award	₩2,400,000
InterNews Kazakhstan	₩26,400,000
Prague Civil Society Centre	₩13,080,000

시놉시스

이 영화는 실제 현실과 국가가 만든 가공된 내러티브 사이에 낀 한 나라에서의 힘든 한 해를 담고 있다. 소련 붕괴 후 30년이 지난 현재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독재 국가로 남아 있지만, 카자흐스탄의 젊은 세대는 오랫동안 이를 벗어나고자 했다. 재능 있는 젊은 운동선수가 비극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시작하여, 그 해에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며 갈등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살해된 챔피언은 자수성가했던 선수로 사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도 사건으로 인한 불합리하고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사회 혼란을 부채질한다. 감독의 주의 깊고 섬세한 카메라의 시선은 고향 땅 이곳 저곳의 비극 이후 등장한 새로운 시민운동의 비밀 모임,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이 예술 행위를 더해 시위 준비를 하는 비밀 모임을 보여준다. 삶의 경험은 많지 않아도 무엇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아는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그들의 두려움, 희망, 내면의 도전을 느끼고자 한다.

기획의도

나와 동료들은 이중성의 공간에 살고 있다. 국가는 현실을 조작하여 추상적이며 기괴한 세상을 만들어냈고, 이 허구를 뒷받침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소련 시절 전성기 때의 행복과 번영에 대한 환상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광택이 나는 표면 아래의 실제 구조물을 본다. 나는 이 영화에 논쟁적이고,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우리 삶의 초상화를 있는 그대로 담고 싶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삶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매우 가까워서 이야기를 담는 형식이어야만 한다. 투쟁이 꿈틀거리는 시작점에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 충동은 나를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책임자로 만든 듯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은 투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시민 활동가와 예술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나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담는다.

트리트먼트

후텁지근한 알마티의 저녁. 운동장 근처로 꽃을 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울타리는 도로 위에 올려진 그림과 사진, 양초와 장난감들로 덮여 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비극적인 내용을 반복하면서 속삭이고 있는 듯하다. 올림픽 챔피언 한 명이 죽었다. 그는 얼음 위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유명했고, 차에서 자동차 부품을 훔치려던 강도들에게 치명상을 입었다.

젊은 배우들이 지방 한 극장에 모여 그 비극에 대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을 읽는다. “우리가 애도하고 있는 것은 그의 죽음뿐 아니라 무력감에 의해 우리가 마비되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걸샤이 등장한다. 그녀는 새로운 시민 주권 운동을 할 사람들을 모은다. 참가자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로 변화라는 대의명분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할 것을 다짐한다. 이 모임에 디마쉬가 처음 등장한다.

이 영화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폭탄처럼 일어난다. 대통령이 30년 동안 부동의 권위를 행사한 후 사임하고, 그를 기리는 의미에서 수도의 이름이 바뀌자 사람들은 동요하고 반발한다. 이제 카메라는 젊은 운동가들을 비춘다. 법정에서 젊은 투쟁가들, 그리고 거리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는 그들의 동료들이 보인다. 법정에서의 뉴스를 취재하는 아셈이 보인다. 펼쳐지는 사건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영화의 주인공들은 여과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다. 운동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영화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자신을 최대한 드러낸다. 소위 선배들은 시위를 벌이려 하지만 결국 개별 심문을 당하게 된다. 운동가들과 정부 관계자 사이의 우정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 젊은 투쟁가들은 그들만의 운동을 형성하기로 결심한다. 여름 내내 그들은 첫 시위를 준비한다. 시위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들은 어쨌든 함께 모여서 행진하기로 결정한다.

도시가 축제 분위기인 국경일에 그들은 길거리 카페에서 만나, 두 테이블을 하나로 합쳐 앉는다. 디마쉬는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쉬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왼쪽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아.” 그가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말한다. 그는 잠시 얼었다가 재빨리 일어서서 번쩍 뜬 눈이 그려진 검은 깃발로 몸을 감싸고 거리 한가운데로 간다. 나머지 젊은이들도 그를 따른다.

제작사

TIHIY SVET (QUIET LIGHT)

2015년 카테리나 수보로바가 설립한 다큐멘터리 스튜디오 티하이 스벳 TIHIY SVET (QUIET LIGHT) 은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고 사람과 환경의 관계를 증진시키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불의의 문제에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다큐멘터리 영화와 사회 캠페인 영상을 제작한다.



감독

카테리나 수보로바
katasuvorova@gmail.com

QYZBOLSYN – Let it be a Girl | 연출 | 제작중
Ninety One: 세상에 맞서다 Face the Music | 연출 | 2018
201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씨 투모로우 Sea Tomorrow | 연출 | 2016
2016 로카르노국제영화제
미디어스탠 Mediastan | 공동작가 | 2014



프로듀서

빅토리아 칼라쉬니코바
vikt.kalashnikova@gmail.com

QYZBOLSYN – Let it be a Girl | 제작 | 제작중

VoB: 히잡을 쓴 메탈밴드 Voice of Baceprot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어, 순다어 | 90min | DCP
예술&문화, 전기, 종교, 생활, 사회&인류, 청소년&어린이



VoB라고도 알려진 보이스 오브 바체프룻은 인도네시아 가루트 출신의 히잡을 쓴 3인조 헤비메탈 밴드다. 멤버는 피르다, 시티, 위디 세 명의 여학생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그들이 공연하는 무대까지 VoB의 일상을 따라갈 것이다.

목표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예산 현황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8.06
제작	2018.06 - 2020.11
후반작업	2018.10 - 2021.03
제작완료	2021.04

확보 예산

자체 확보	₩186,000,000
-------	--------------

시놉시스

히잡을 쓴 인도네시아 여학생 3명 피르다, 시티, 위디는 2014년 '보이스 오브 바체프룻' (VoB) 이라는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인 동시에 다원주의 종교들이 종종 서로 부딪치는 곳이고, 그러한 충돌은 점점 잦아지고 커지고 있다.

귀가 찢어지는 소음이 가득한 도시에서 벗어난 한 골짜기의 집에서 값싼 전기 기타를 들고 벽돌로 받쳐진 드럼 세트를 치고 있는 세 명의 소녀를 상상해보라. 이들은 방과 후 매일 두 세시간 동안 그들만의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연습한다. 미래의 10대들보다 음악을 잘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톰 모렐로(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기타리스트)는 자신의 노래를 연주하는 이 소녀들의 바이럴 영상을 보게 되고, 보이스 오브 바체프룻은 화제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이슬람 교인들은 마을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제한다. 청소년들 중 일부는 큰 꿈을 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결혼을 통해 가난에서 탈출하는 꿈밖에 꿀 수 없다. 피르다와 시티, 위디는 몽상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전문 뮤지션의 꿈을 꾸다. 이들은 이제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에게 인생은 끝없는 선택이며 큰 꿈을 꾸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된다. 메탈 장르에 대한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세를 더 키워간다. VoB는 아주 작은 무대, 학교 공연, 그리고 마침내 명성 있는 무대까지 길고 구불구불한 여행을 떠난다.

기획의도

나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을 다룬 영화를 만들고 싶다. 보이스 오브 바체프룻 (VoB) 는 이 디지털 사회에서 진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이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배운다. 이들이 사는 마을에서 인터넷이란, 인터넷 연결상태가 좋은 먼 곳에 가거나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있어야만 한다. 이들은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책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친구들이 그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을 관찰해 왔다. 하지만 소소한 지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나의 질문이 시작된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 세 명의 아이들뿐일까? 지난 2년간 연구와 촬영을 했지만, 밴드 멤버 3명을 제외하고는 변화에 개방적인 다른 10대들은 보이지 않았다. 왜 우리 사회에서 변화의 불꽃은 늘 이렇게 작게 일어나는 것일까?

피르다가 학교 운동장 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날을 기억한다.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무대에서 항상 떨어져 있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여기 서있어." 라고 소리친다.

이 영화는 터무니없이 거대한 인도네시아의 크기를 보여주기도 할 것이다. 진부해 보일 수도 있지만, VoB와 공연장에 동행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여행할 것이고, 망가진 기타 줄을 사기 위해 또 다른 수백 마일을 여행할 것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카메라는 우리에게 마을과 도시의 아이러니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이 영화는 아주 세세한 감정을 다루는 영화이기도 하다. 카메라는 밴드 멤버들이 음악적 커리어를 위해 가족과의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을 비롯해 우정과 가족의 친밀감을 담게 된다. 부모들은 딸의 장래를 걱정한다.

위디, 피르다, 시티는 큰 꿈을 꾸지만 집과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친밀한 순간을 충실하게 또 가깝게 담을 때, 영화 속 음악은 그들 마을 집 주변의 자연 소리들로 바뀐다.

트리트먼트

<VoB: 히잡을 쓴 메탈밴드>는 설명적 다큐멘터리(expositive documentary)로 마을에서의 일상과 다음 공연을 위해 떠나는 여정을 보여주고, 보이스 오브 바체프룻 (VoB) 멤버들과의 인터뷰가 보이스오버로 들릴 것이다. 패스트 컷 기법으로 긍정적이고 또 음악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이 세 소녀가 삶을 힘있게 견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스튜디오 장비와 형편없는 악기로도 음악을 계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음악을 계속하기 위해 설거지와 케이크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말이다.

대부분의 10대들처럼, VoB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팬들과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보여줄 것이다. SNS 상에서 비판적인 피드백도 자주 들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악마의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기도 한다. 영화는 소셜미디어의 히스테리적인 특징도 다룰 것이다.

언론은 이슬람 사회, 히잡을 쓰는 여성, 메탈 음악을 한 틀에 넣어서 VoB를 다루려고만 하고, 종종 VoB가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과 그들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말해주진 않는다. 밴드 멤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세 명의 평범한 십 대들

이기도 하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언론 매체와는 다르게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이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내러티브를 재구성할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카메라의 시점을 VoB 손에 맡길 것이다. 그들 일기처럼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직접 서로를, 부모님을, 그리고 매니저를 인터뷰하고 십대가 가진 꿈의 아름다움과 고통 등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제작사

KawanKawan Media

카완카완 미디어 KawanKawan Media 는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제작사로,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콘텐츠에 주목한 강력한 경험을 선보이는 방식으로의 시청각 예술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2016년 베니스국제영화제 초청작 <공포의 기원에 대하여> (바유 필레몬 감독), 2018년 토론토국제영화제 상영작 <발라드 오브 블러드 앤드 투 화이트 버킷츠> (요셉 앙기 노엔 감독) 등 다수의 단편과 장편영화를 제작했다. 2016년에는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필름메이커 경쟁부문에서 첫 상영한 요셉 앙기 노엔 감독의 <솔로, 고독>을 제작했으며, 2019년에는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작이자 특별 언급을 받은 <공상의 과학>을 제작했다. 차기작들로는 2019년 베를린국제영화제 공동제작마켓 선정 프로젝트 <Autobiography> (막불 무바락 감독), 2019년 토리노필름랩 선정 프로젝트 <The Songsmith> (바유 필레몬 감독), 2020년 시네마트 선정 프로젝트 <질라와 두 이름의 남자> (요셉 앙기 노엔 감독), 그리고 <VoB: 히잡을 쓴 메탈밴드> 등이 있다.



감독

요셉 앙기 노엔
yosep.anggi@gmail.com

공상의 과학 The Science of Fictions | 연출 | 2019

2019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솔로, 고독 Solo, Solitude | 연출 | 2016

2016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출인원을 본 적 없는 캐디 A Lady Caddy Who Never Saw a Hole in One | 연출 | 2013

아주 특별한 여행 Peculiar Vacation and Other Illnesses | 연출 | 2012

2012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프로듀서

율리아 에비나 바라
yuliaevina@gmail.com

공상의 과학 The Science of Fictions | 제작 | 2019

2019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공포의 기원에 대하여 On the Origin of Fear | 제작 | 2016

2016 베니스국제영화제

솔로, 고독 Solo, Solitude | 제작 | 2016

2016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프레젠테이션



그의 꿈은 '발레리노'가 아닌 '발레리나'였다. 드랙퀸 모어의 세상을 향한 드랙쇼!

목표

제작비 마련, 투자 유치, 국내외 영화제 출품, 공동제작 파트너 섭외, 선판매, 세일즈사&배급사 미팅, 방송, 뉴미디어 관계자 미팅, 프로젝트 홍보&마케팅

예산 현황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8.07 - 2018.12
제작	2019.01 - 2020.08
후반작업	2020.10 - 2020.12
제작완료	2021.01 - 2021.02

확보 예산

자체 확보	₩15,000,000
2019 DMZ Docs Pitch - 최우수 프로젝트	₩30,000,000
부산국제영화제 - AND 펀드	₩10,000,000
서울영상위원회	₩35,000,000
영화진흥위원회	₩40,000,000
KCA - 기획개발	₩10,000,000

시놉시스

이태원의 클럽 트랜스의 간판이 커진다. 클럽 트랜스의 무대 중앙에는 간판스타 '모어'가 있다. 경력 20년의 베테랑인 모어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 무대를 둘러싼 관람객들은 환호한다. 우아하면서도 불경한, 그러나 페이스오스가 담긴 모어의 무대가 끝나면 사람들은 무대를 향해 팁을 던진다. 사람들은 그 혹은 그녀를 '드랙퀸'이라 부른다. 트랜스젠더인 모어는 평생을 차별과 혐오, 배제 속에서 살아왔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그녀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모어는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말을 늘 달고 산다. 발레를 전공한 그녀의 꿈은 발레리나였다. '드랙쇼'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으나 늘 성에 차지 않았다. '드랙쇼'를 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어느 날,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존 카메론 미첼이 본인의 공연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와 예술과 작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눈다. 존 카메론 미첼은 모어와 헤어지면서 '미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모호한 말을 남기는데...

기획의도

사람들은 '그녀'를 '그'라고 불렀다. 느닷없이 뺨을 휘갈기거나, 손가락질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그'의 문제라고 폄하하고 조롱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답게 살고 싶다.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녹아든 아름다움의 결정체가 되는 순간을 꿈꾼다. 그녀는 오늘도 밤의 무대에 선다. 자신의 정체성이 유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괴로우면서도 이미 이태원 바닥에서 20년 넘게 살아왔다. 그녀의 몸짓은 처절하지만 아름답고, 쓸쓸하지만 따뜻하다. 스스로를 '털 난 물고기(毛魚)'라고 부르는 드랙퀸(여장 남자, Drag Queen) 아티스트이자 트랜스젠더인 모어. 그녀가 부르는 노래와 춤으로 구성된 뮤지컬과 진솔한 삶의 면면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뮤지컬 다큐멘터리 <모어>는 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세계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한 아티스트의 모습을 통해 진한 감동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제작사

익스포스필름 | exposedfilm2000@gmail.com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 온 익스포스필름은 전통적인 휴먼 다큐멘터리의 내러티브 위에, 음악, 미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창작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표현방식이 더해진 다큐멘터리를 선보여왔다. 익스포스필름은 다큐멘터리를 즐기는 관객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형식과 장르적 특색을 갖춘 다큐멘터리가 젊은 세대에게 '다큐멘터리'를 좀 더 소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감독

이일하
exposedfilm2000@gmail.com

카운터스 | 감독 | 2017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올보 권투부 | 감독 | 2014
2014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작



50여 년을 같이 산 남편이 죽고 난 뒤, 그녀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목표

제작비 마련, 투자 유치, 세일즈사&배급사 미팅

예산 현황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8.10 - 2019.01
제작	2019.02 - 2020.04
후반작업	2020.05 - 2020.06
제작완료	2020.07

확보 예산

2018 DMZ Docs Fund - 장편프로젝트	₩20,000,000
자체 확보	₩24,000,000

시놉시스

강원도 삼척, 하늘과 맞닿은 산골 마을 접리.

다닐 학교도 없고, 가정형편도 어려워 글을 배우지 못한 채 17살에 시집을 온 임선녀 씨는 이제 67세이다.

'못 배워서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살았다'는 선녀 씨.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오던 어느 날,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그가 '한글을 배우라'는 유언을 남기며, 세상을 떠난다.

혼자 남은 두려움은 잠시, 선녀 씨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글을 읽게 되자, 소를 팔았다.

그리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기획의도

남편의 죽음은 공포였다. 글을 몰라 평생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그녀.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한글 공부. 이름을 쓰니, 한 자 한 자 읽어졌다.

그녀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쳐나가기 시작한다.

<화>는 늦은 나이에 시작된 선녀 씨의 다시 쓰는 일기다. 늦은 나이, 할머니라는 호칭 대신 선녀 씨로 불리며 그녀의 인생은 다시 빛나고 있다.

<화>는 삶의 굴레에 끌려다니던 까막눈 할머니, 임선녀가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이야기 그 자체이다. 고전의 연속, 여전히 그녀는 겁이 많지만,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 나간다.

이제 우리는, 임선녀 씨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줄 때이다.

제작사

(주)큰물고기미디어 | guiny00@naver.com

(주)큰물고기미디어는 영상 콘텐츠 독립제작사로 2010년 설립되었으며, 다큐멘터리 및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감독

원호연
why245@gmail.com

화 | 연출 | 2020
선두 | 연출 | 2016
강선장 | 연출 | 2012



프로듀서

김선영
guiny00@naver.com

화 | 프로듀서 | 2020
선두 | 프로듀서 | 2016

네 개의 여정 Four Journeys

네덜란드 | 중국어, 영어, 네덜란드어 | 90min | DCP, MP4
역사, 사회&인류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아래, 나의 존재는 불법이었다. 나는 둘째로 태어났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불법으로 존재해야만 했던 나의 어린 시절로 인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부모님에게 죄책감을 느꼈던 시간들을 마주한다. 부모님과 나의 망가진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나에게, 부모는 정작 아기를 가지라고 강요하고 있다.

목표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9.01

제작 2019.04 - 2020.01

후반작업 2020.10 - 2021.07

제작완료 2021.08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 확보 ₩514,749,600

시놉시스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아래에서 나의 존재는 불법이었다. 내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3년 치 봉급에 해당하는 몰수금을 내야만 했고, 동시에 그의 정치생활도 끝이 났다. 네덜란드에서 5년을 산 후, 31살이 된 나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소속감을 느끼고 망가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2017년, 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과거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의 추억은 깃들지 않는 베이징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그 곳에서 1986년 5월 천안문에서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을 가까스로 찾았다.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부모님과 누나는 내가 태어날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2,600마일을 여행했다. 여행 중에서 그들은 마오의 초상화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 나는 2018년에 다시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간호를 해드리던 중 그보다 누나를 훨씬 더 아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외감을 느꼈다.

나는 두 살 때 익사한 형에 대해 알게 된다. 형이 죽은 후, 우리 가족은 고통을 숨기기로 결심하고 그를 잊으려고 했다.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하고 나는 형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다. 마침내, 나는 가족 묘지가 아닌, 야생의 숲에서 형의 무덤을 찾아낸다. 이 두 번의 중국 여행 후, 나는 가족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지만, 두 번의 여행 모두 과거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내게 내던진다. 그 와중에, 우리 가족은 오로지 미래에만 신경 쓰며 나에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라고 강요한다. 우리 가족은 내가 태어나면서 형의 죽음으로 생긴 상처가 끝났듯 새로 태어난 아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획의도

<네 개의 여정>은 개인 회고록 형식의 영화이다. 나는 여기서 내레이터, 주인공, 촬영 감독이다. 카메라는 연구 중 발견하게 된 사실이나 생각을 기록하는 펜과 같다. 영화는 내가 가족을 어떻게 관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현대 중국에서의 두 세대를 대표한다. 또 어머니와 누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남성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 아래 두 세대의 여성을 보여줄 것이다. 관객들을 나의 가족관계로 초대해 일종의 친밀한 구경꾼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내부에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싶다. 나는 정책이 사람들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현대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치체제를 연결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래픽 디자인과 서사가 없는 영상 아트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서 때때로 그래픽 디자인을 영화 언어로 사용한다. 시각적 은유와 반복적인 요소들, 클로즈업, 쉐로우 포커스를 사용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머러스하고 장난기 있는 스타일로 진행하고자 한다.

제작사

Pieter van Huystee Film | www.pvhfilm.nl

피터 반 후이스티가 1995년 설립한 제작사로, 많은 영화 프로젝트의 제작과 해외 공동 제작을 진행하였다. 잘 알려진 네덜란드 유명 영화인 요한 판 데르 키우켄, 헤디 호니그만, 렌조 마르텐스, 레너드 레텔, 헬리히, 보리스 게레츠 등은 물론 재능 있는 젊은 감독들과 함께 영화를 제작했다. 제작에 참여한 많은 영화들이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며 다수의 상을 받았다.



감독

루이스 핫핫핫
louishothot@outlook.com



프로듀서

피터 반 위스티
pieterdoc@gmail.com

They Call Me Babu | 제작 | 2019

2019 IDFA

2020 독페스트 - 최우수다큐멘터리상

2019 IDFA

Deaf Child | 제작 | 2017

2017 IDFA - 관객상

바다에서 마지막 날들 Last Days at Sea

필리핀 | 타갈로그어, 비사야어 | 80min | DCP
환경&자연, 사적&관점, 사회&인류, 청소년&어린이



레이보이와 나는 세상에 대한 애정으로 단결했다. 그가 공부하기 위해 도시로 떠나기 전에, 우리는 어린 시절의 소중한 순간들이 추억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을 촬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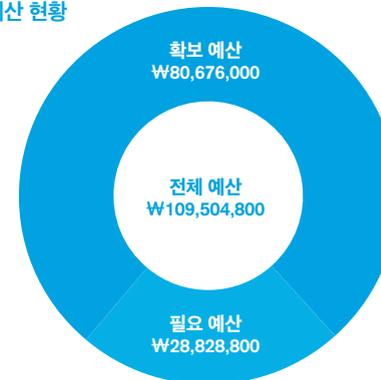
목표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7.01 - 2018.01
제작	2018.03 - 2018.06
후반작업	2019.01 - 2020.12
제작완료	2021.01

예산 현황



확보 예산

BODA Media Group	W2,407,200
IDFA Bertha Fund Classic	W12,600,000
Ninjadong Studios	W20,640,000
Svemirko Audio Visual Art Productions	W3,436,800
Svemirko Film Productions	W41,592,000

시놉시스

5년 전, 필리핀 남부의 고립된 어촌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영상에 담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 레이보이를 만났다. 레이보이는 12년 인생을 모두 그곳에서 보냈다. 바다에서 해엄칠 때 치는 물결, 등에 맺혀 마른 물방울처럼 보이는 소금, 사촌들과 함께 숲에서 하는 놀이, 그리고 별 아래에서 고향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며 보낸 밤들로 가득한 삶이었다. 레이보이가 사는 마을에 고등학교가 없어 시내로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마을로 돌아왔다. 나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함께 기억하고 싶은 작은 것들을 찍기 시작했다. 여름은 끝났고 장마가 찾아왔다. 레이보이가 집을 떠날 준비를 할 때 함께 걸었다. 레이보이는 작은 몸짓으로 자신이 아는 유일한 세상과 작별하는 법을 배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미래를 마주하는 것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삶의 순간을 한 번 더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췄다. 우리는 성장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린 시절과 작별할 수 있는 용기를 찾는다.

기획의도

레이보이를 처음 만났을 때, 작고 소소한 것 속에서도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그의 능력을 보았다. 내가 한때 가졌던, 하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열린 마음과 애정을 그에게서 보았다. 나는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레이보이가 변했는지 보고 싶었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돌아왔다. 어린 시절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그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들을 함께 촬영했다. 나는 천천히 그들의 삶의 복잡성을 이해했다. 어휘량은 풍부하지만 불안정했고, 일하는 것은 매일 바다에서 죽음을 무릅쓰는 것을 의미한다. 어부들은 파도와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었다. 요즘 오는 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오는 철이 아닌데도 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레이보이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큰 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지만 기후 변화를 피부로 경험하는 것은 레이보이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다에 잃었다는 슬픔과 지금까지 알았던 세상과 작별을 고하는 어려운 일은 성장과 성숙을 강요한다. 레이보이가 그러한 성장의 도전에 마주하면서, 나처럼 세상에 대한 애정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러나 삶에는 어려움, 아름다움, 위험, 친절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씩씩하게 세상을 대하고 있었다. 이 영화를 통해, 나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시간을 멈추는 것, 더 나은 미래를 찾을 때가 오면, 아름다운 어린 시절이 사라지기 전에 손으로 꼭 잡는 것.

트리트먼트

영화는 레이보이와 나의 관계가 깊어지고 내가 마을에서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레이보이가 마을을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영화를 통해 우리는 천천히 그 떠남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이 영화는 레이보이의 내면세계와 마을에 존재하는 외부 현실 세계 사이에서 펼쳐진다. 꿈의 장면과 현실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며 시각적으로 오고 감을 보여주는데, 대화를 통해 공유되는 현실의 기억과 상상에 접근하는 순간들이 영화 속 꿈의 장면이다. 이 장면들은 현실을 다르게 마주할 수 있도록 고요하고 사색적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운 과거에 형태를 부여하면서 활기차게 흐른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레이보이와 내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즉 우리만의 세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영화는 마을의 거친 모습, 날 것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실을 표현한다. 또 레이보이가 어른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장면들도 현실을 나타낸다. 꿈과 현실을 오가며 레이보이가 서 있는 삶에 대한 복잡한 그림을 알게 되며, 카메라 인터랙션을 통해 레이보이와 그의 이모들, 삼촌들이 어떻게 나와 소통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추억과 미래의 고민거리들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을 수 없이 미래는 다가오고 여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 시절과 성인기를 거쳐도 변하지 않는 공간은 두 번의 시간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여름이 끝나감을 보여주고자 계절의 변화가 특정 장면에서 강조될 것이며, 움직이지 않는 시공간은 꿈 혹은 사색의 순간으로 구성될 것이다.

제작사

Svemirko Film Productions

필리핀 출신 베니스 아티엔사 와 대만의 우 판이 공동 창립한 스베미르코 필름 프로덕션 Svemirko Film Productions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독창적인 다큐멘터리를 제작 및 연출한다.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작품으로는 <바다에서 마지막 날들> (베니스 아티엔사 감독), <눈이 녹는 계절>, <XiXi> (우 판 감독)가 있으며, 비전 뒤 릴, 리스본 독스, 독엣지 콜 카타, 인도네시아 독스 바이 더 씨, 시넥스 중국 다큐멘터리 포럼 등의 세계 영화제들에 초청된 바 있다. 아티엔사와 우는 IDFA 아카데미 수료자로, 현재 IDFA 프로젝트 스페이스와 CIRCLE Women Doc Accelerator 2020 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며, 유럽 다큐멘터리 연합(DAE)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감독

베니스 아티엔사
venicecatienza@gmail.com

Bakter | 연출 | 2017



프로듀서

우 판
jadewu1228@gmail.com

The Scents | 연출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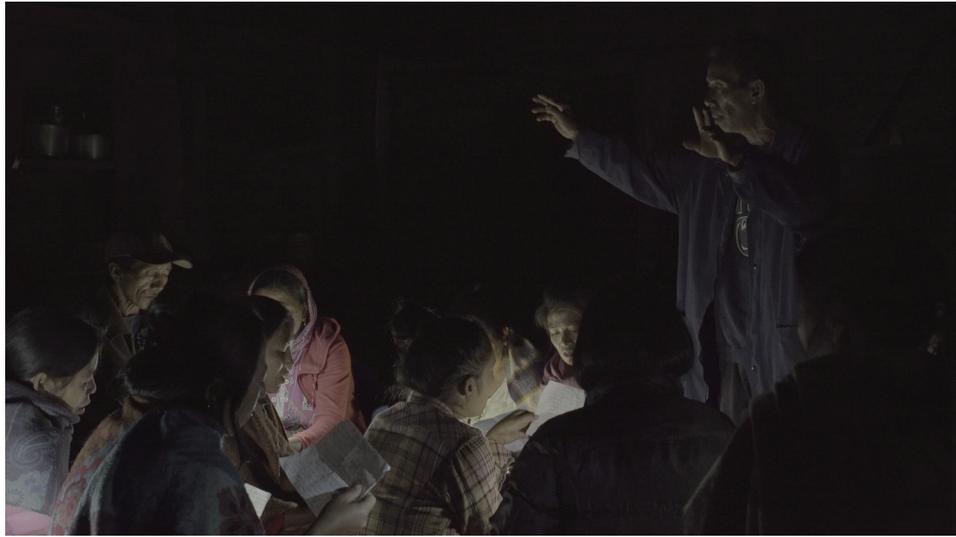
A Roof in Common | 연출 | 2018

Koike Kouji | 연출 | 2015

2015 PTS View Point New Talent Award

불이 들어오면 Flickering Lights

인도 | 탕굴어 | 100min | DCP, MOV
사회&인류



수십 년 동안 인도-미얀마 국경에 있는 마을 토라는 전기를 기다려왔다. 어느 날 곧 전기가 공급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인생은 희망과 좌절 사이에서 깜박이고, 유머만이 존재한다.

목표

투자 유치, 국제영화제 출품, 세일즈사&배급사 계약, 선판매, 방송

예산 현황



제작 계획

기획/개발	2015.12 - 2016.09
제작	2016.10 - 2019.04
후반작업	2019.05 - 2020.11
제작완료	2021.03

확보 예산

자체 확보	₩48,000,000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 - 베스트 아시아 프로젝트	₩16,800,000
Bertha Foundation Production Agreement	₩12,000,000
Catapult Development Grant	₩24,000,000
Catapult Momentum Grant	₩18,000,000
IKON Docs Netherlands Co-Production	₩19,800,000

시놉시스

인도 북동부의 고산지대에 토라라는 마을이 있다. 좋지 않은 도로, 불규칙한 교통 서비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에다, 병원도 없고 전기나 이동통신망, 취업의 기회는 더더욱 없다. 어느 날 전봇대를 실은 트럭이 마을에 도착하고, 사람들은 전기가 공급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이 영화는 우리를 토라의 세계로 초대한다. 그곳이 주는 따뜻한 삶의 질감을 경험하게 한다. 영화는 의기양양하고 아שמ만 만한 자스민을 따라간다. 그녀는 네 명의 아이들을 기숙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일한다. 그녀의 꿈은 냉장고를 사서 토라에 작은 호텔을 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늘 전기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자스민의 이야기와 마을 전기 공급 이야기와 함께 영화는 전개된다. 전기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흥분하긴커녕 무관심하다. 이미 정부가 한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정치 집단의 경제 봉쇄, 끊임없는 장마와 불충분한 노동력 때문에, 그리고 전기 관계 부서들의 순수한 의지 부족으로 인해 일이 오래 지연되고 있다. 희망을 가질 때 또 다른 시련이 닥치듯 전기 설비자들과 공사에 회의적인 마을 사람들 사이의 희비극만이 전개된다.

도시 출신 젊은 변호사이자 마음먹은 일은 해내고 만다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은 마을 촌장 아상과 마을의 모든 일에 대해 조용히 증언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98세의 캄랑은 이 희비극의 조연들이다.

토라에는 언제 전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영화가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기획의도

우리는 기계화된 것이 일절 없는 모든 것을 순전히 육체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토라를 만났다. 이곳 사람들은 현대적인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세계처럼 보이는 곳에서 살도록 강요되어 왔다. 일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웃음과 강인함으로 마주하는 자세가 퍽 인상적이었다. 심각한 이야기를 가벼운 손길로 건드리며 관객들이 함께 이곳의 문제를 찬찬히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매일의 일상이 삶의 더 깊은 진실을 밝힐 힘을 가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촬영했다. 그 순간들을 포착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관찰하고자 노력했다. 편집 작업을 하면서, 장면 장면들이 희비극으로 변모했다는 모순에 끌렸다. 때때로 진흙을 삼으로 퍼내는 평범한 하루 동안의 대화는 태연하게 영혼의 비참함을 말할 수 있었고, 전선을 보는 광경은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트리트먼트

작은 태양광 램프 하나만이 불 밝히고 있는 어둠과 밤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이 영화는 우울하면서 동시에 마법과도 같다. 눈발에서 또 피곤한 하루를 보낸 자스민이 배터리 구동 장치를 이용해 발리우드 영화를 보려고 애쓴다. 캄랑 영감은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라디오를 듣고, 아상은 벌들을 돌보며 혼자 쓸쓸히 앞뜰을 돌아다닌다. 전기 기술자 팀이 마을에 도착하고 마을 사람들 몇은 그들을 돕기 위해 고용된다. 손에 들고 있는 도구는 주방 기구들이다. 작업 속도는 형편없이 느릴 수밖에 없다. 마을 구석구석에는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선이 달리는 동안, 토라 사람들은 대부분 평소와 다르없이 생활을 한다.

캄랑은 영성한 작업을 지켜보며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마을 촌장 아상은 사람들을 달래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와중에 자스민은 희망을 본다. 전기가 들어오면 냉장고를 사서 작은 호텔을 차릴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자스민은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몇 달이 지난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나갔지만 기다림은 계속된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전기가 들어온다. 자스민은 그녀의 꿈, 냉장고를 사기 위해 다른 마을로 여행을 간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은 전기에 익숙해졌다. 자스민의 호텔은 잘 돌아가고 있고, 사업은 잘되고 있지만, 생활은 정신없이 바빠졌다. 어느 날 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전봇대가 떨어지고 철사가 뚝 끊어지면서 마을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친다. 이것은 일시적인, 곧 수습될 사고일까 아니면, 토라 사람들은 또다시 실망할 것을 각오해야 할까?

제작사

Metamorphosis Film Junction

메타모르포시스 필름 Metamorphosis Film Junction 은 2003년 설립된 영화사로 영화제작, 사진촬영, 영화인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하고 있다. 제작된 작품들은 각종 영화제와 포럼에서 상영되었다. 영화가 지역사회에 의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광범위하게 상영되도록 대외 협력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제작 팀은 지난 15년 간 인도 북동부를 중심으로 작업해왔으며, 3년 넘게 멜버른대학교 OS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니푸르 지역과 나갈랜드 지역의 젊은 영화인들을 멘토링해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영화인들이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감독

아누파마 스리니바산
anu.iwonder@gmail.com

Are You Going to School Today? | 연출, 촬영, 편집 | 2019
Nirnay (Decision) | 연출, 편집 | 2012
I Wonder... | 연출, 촬영, 편집 | 2009
2009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On My Own Again? | 연출, 촬영, 편집 | 2007
On My Own | 연출 | 2002



감독&프로듀서

아니르반 두타
anirban@metamorphosisfilms.com

The Last Run | 연출 | 2019
Tale of Stamps | 연출 | 2016
5, Exchange Lane | 연출, 제작 | 2015
Beyond the Mountains | 연출, 제작 | 2011
The Mud House | 연출, 제작 | 2010
Shadows of Tehri | 연출, 제작 | 2003